제 1 장 고장을 빚낸 사람들

1. 한반도를 재통일한 왕건

왕건(王建)은 877년(신라 헌강왕 3)에 송악(松岳, 지금의 개성)의 호족 왕륭(王隆)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신라는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상주에서 원종(元宗)이 반란을 일으키자 원주에서 양길(梁吉)이 일어나고, 죽산에서는 기훤(箕萱), 전주에서는 견훤(甄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혼란 속에 892년(신라 진성여왕 6)에는 견훤이 전주를 근거로 후백제(後百濟)를 세우고, 901년(신라 효공왕 2)에는 양길의 부하로 있던 궁예(弓裔)가 송악을 근거로 후고려(後高麗)를 세우니 마침내 통일 신라는 후3국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왕건은 19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왕륭과 함께 철원에 근거하고 있는 궁예의 부하가 되었다. 궁예의 부하가 된 왕건은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워 점차 그 지위가 높아졌다. 왕건의 눈부신 활약은 전라도 방면에서 전개되었다.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의 나주(羅州) 방면을 공략함으로써 견훤을 후방에서 견제하는 한 편, 후백제가 중국과 통하는 뱃길을 끊어버렸다. 그의 나주 방면 출동은 전후 다섯 차례에 이르렀다. 이 공으로 왕건의 벼슬은 수상인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왕건이 여러 차례 나주 방면으로 출동한 것은 군사적인 목적 외에 날로 포악해지는 궁예 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속셈에서였다고 한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정권 다툼으로 왕궁에서 밀려나 각지를 전전하다가 중이 되었고 마침내 양길의 부하가 되어 세력이 커지자 양길을 죽이고 나라를 세웠다. 후고려는 뒤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泰封)이라 고쳤는데, 날로 영토가 넓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성격 파탄자가 되어 포악을 일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다가 마침내 도량과 지혜를 겸비한 수상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추대하려는 모의는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 네 사람에 의하여 주동되었다. 918년(신라 경명왕 2) 6월 14일 밤에 왕건의 집을 방문한 이들 네 사람이 왕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왕건은 망서리고 거절하였는데, 부인 유씨(柳氏)가 손수 갑옷을 들고 들어와 입혀 주면서 권고하는 바람에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궁예를 내쫓고 왕위에 오른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치니 그의 나이 42세였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후3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우선 신라와 화친하고 후백제를 공격하였다. 고려와 후백제와의 싸움은 충청도·경상도 방면에서 여러 차례 전개되고 점차 고려의 우세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즉, 견훤이 네 째 아들 금강(金剛)을 사랑하여 그를 후계자로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첫 째 아들 신검(神劍)이 견훤을 김제 금산사(金山寺)에 가두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그리하여 935년(태조 18)에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로 투항하여 왔다. 왕건이 그를 맞아 상부(尙父, 아버지란 뜻)라고 부르면서 집과 땅을 주고 극진하게 우대하니 천하의 대세가 왕건에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신라의 경순왕(敬順王)마저 스스로 항복하여 왔다(935). 왕건은 경순왕 또한 극진히 우대하여 그의 맏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땅을 주었다. 왕건은 견훤과 경순왕이 항복하여 온 이듬 해인 936년(태조 19)에 견훤을 앞세우고 후백제를 쳐서 멸망시키니 이로써 한반도에는 신라 통일 이후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건은 건국하자 곧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쳐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였다. 그리하여 후3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한반도 만의 통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북진정책(北進政策)을 기본적인 건국 정책으로 삼았다. 건국하였을 때의 고려 영토는 대동강 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고구려의 옛 서울인 평양이 여진족의 사냥터로 황폐하였으므로 왕식렴(王式廉)을 보내서 평양을 지키게 하는 한편, 황해도 지방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서경(西京)으로 승격시켜 서경을 개경과 더불어 고려의 정치적·군사적 2대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왕건은 서경을 발판으로 여진족을 복속시켜 고려의 강토가 청천강 선에 까지 미치도록 북방 영토를 개척하여 나아갔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19년 만에 후3국을 통일하고 그 후 8년 만인 943년(태조 26)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67세였다. 왕건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후손들에게 열 가지 훈요(訓要)를 남겼는데, 그 앞머리에서 「내가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 못 추대함을 받고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고 노심 초사하기 19년에 3한을 통일하고 왕위에 오른 지 25년에 몸도 이미 늙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후손들이 법과 욕을 함부로 하여 강기를 어지럽히는 것이니 크게 근심되는 것이다. 이에 훈요를 주는 것이니 이를 후손에게 전하여 거울삼기 바란다」고 하고 서경을 중요시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건은 후3국을 통일하고 우리 강토가 압록강 선에이르게 한 창업(創業)의 영주(英主)였다.

2. 국토 수복의 담략가 서희

서희(徐熙)는 942년(고려 태조 25)에 이천(利川) 출신 서필(徐弼)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필은 고려 초기에 대관을 지낸 사람이다. 명문 가정에 태어난 서희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엄격하였다고 한다. 19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여러 벼슬을 거치는 동안 사신으로 송나라에 건너가 한동안 중단되었던 양국의 국교를 트기도 하였다. 당시 북방의 글안(契丹) 때문에 고려와 송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았다.

고려가 글안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태조 때 부터의 일이다. 몽고족의 한 갈래인 글안이 나라를 세우고(916)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기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태조가 사신을 파견한 바 있는데, 926년(태조 9)에 발해(渤海)를 멸망시키자 태조는 글안을 「무도한 금수의 나라」라 하여 국교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 960년(광종 11)에 중국 대륙에서 송(宋)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 국가가 성립하자 고려와 송이 국교를 맺고 글안을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글안이 송을 정복하고 중국 대륙에 호령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터에 고려가 송과 국교를 맺고 글안에 대항하는 태세를 갖추자 글안이 우선 고려를 정복한 후 송을 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오니 이것이 993년(성종 12)의 제 1 차 침입이다.

고려에서는 수상 박량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 서희를 중군사(中軍使), 최량(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출동하게 하고 성종은 친히 서경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독려하였다. 서북 지방에 침입한 적장 소손녕(蕭遜寧)이 기세를 올리므로 성종이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청하였더니 소손녕은 무조건 항복할 것을 고집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어전 회의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항복하자는 주장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자는 주장이 맞섰다. 처음 성종은 땅을 떼어 주자는 의견을 좇아 서경의 창고 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쌀은 대동강에 버리라고 명령하였는데, 서희가 이에 반대하여 땅을 떼어 줄 바에야 한 번 싸워 본 후에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지백(李知白), 또 한 서희의 주장에 찬동하면서 땅을 떼어 주는 것을 반대하였으므로 결국에는 성종도 서희의 주장을 따르게 되었다.

한 편, 소손녕은 고려에서 아무런 회보가 없자 남하를 계속하여 안융진(安戎鎭, 지

금의 안주)을 공격하다가 대도수(大道秀, 발해 왕자 대광현의 아들)에게 대패하였으므로 전의를 상실하여 더 전진하지 못하고 속히 항복할 것을 촉구할 따름이었다. 이에 성종이 「누가 적진에 들어가 세 치의 혀로써 적군을 물리쳐 만세에 공을 빛낼 수 있느냐」고 묻자 서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섰다. 성종은 적진으로 들어가는 서희를 강변까지 전송하면서 성공을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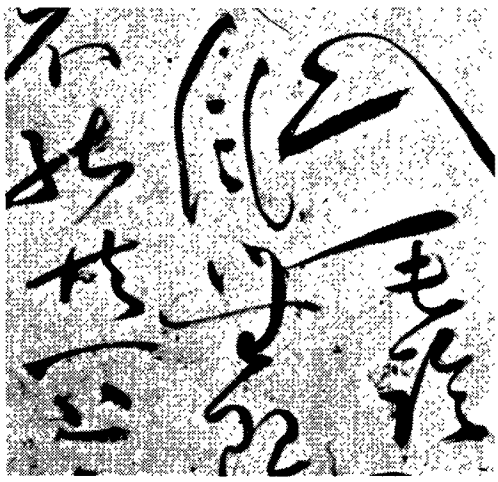
서희가 글안군의 진영에 들어서자 소손녕이 오만하게 뜰에서 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신하가 왕에게 절할 때에는 마땅히 뜰 아래에서 하는 것이 예이지만, 지금은 양국의 대신이 회견하는 만큼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소손녕이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자 서희는 노하여 숙소로 돌아와서 눕고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소손녕이 서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대등한 예로써 회견의 절차를 끝내고 동서로 마주 앉아 담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손녕은 그들이 침입한 이유와 강화 조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고구려의 옛땅을 자주 침식하고 있고, 또 당신들은 우리 글안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정을 보게 된 것이니 이제 만일 땅을 떼어 주고 조공을 바치면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희는 「그것은 잘 못 안 일이다. 우리 나라는 곧 고구려의 옛땅을 터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였고 평양을 서경이라 한 것이다. 만약 국경을 논한다면 당신들의 동경(東京, 요동)도 모두 우리 경내에 들어 있는 것이니 만큼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압록강 내외의 땅도 우리의 경내이지만 지금은 여진이 몰래 점거하고 있는 형편일 뿐더러 완악하고 간사한 짓까지 하고 있어 길이 막힘이 바다를 건느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조빙(朝聘)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다시 찾아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하게 되면 어찌 감히 조빙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약 내 말을 황제에게 아뢰어 준다면 어찌 애납(哀納)하지 않겠는가」라고 강경한 말로 변박하였다.

소손녕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담판의 사정을 보고한 후, 그들 황제의 명령으로 철군하였다. 7일간 머물다가 돌아올 때, 소손녕은 서희를 만류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예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서희가 돌아오자 성종은 크게 기뻐하여 강변까지 나와 그를 환영하였다. 서희는 이 번 담판에서 분명하고도 정당한 논리로서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략 있는 외교 수완으로 그의 주장을 관철시킴으로써 글안에 조공한다는 조건으로 압록강 동쪽의 여진 땅 280리의 소유를 묵인하는 확약을 맺고 돌아온 것이다.

글안군이 철수한 이듬 해 부터 서희가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소탕하고 성보를 쌓으니, 이 지역이 뒤에 두고두고 글안과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강동(江東) 6주(州)이다. 998년(목종 1)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57세였다. 왕은 후하게 장사지내게 하고 시호를 장위(章威)라고 하였으며. 현종조에 성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3. 귀주 대첩의 명장 강감찬



「극진하다. 하늘이 백성을 사랑함이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명현을 내시어 이것을 구하는도다. 목종 말년과 현종 원년에 역신이 난을 꾸미고 글안의 강적이 내습하여 안으로 내홍이, 밖으로는 외난이 있어 국가가 위급한 때에 강공이 없었다면 나라가 장차 어찌 되었을 지 알 수 없도다」

이 글은 「고려사절요」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강감찬(姜邯贊)을 기린 말이다. 강감찬은 948년(고려 정종 3)에 금주(衿州, 시흥군)에서 궁진(弓珍)의 아들로 태어났다. 궁진은 태조 왕건의 부하가 되어 훈공을 세운 공신이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강감찬은 어려서 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이 뛰어났는데, 34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고려는 세 차례에 걸친 글안의 침입을 받았다. 제 1 차의 침입은 993년(성종 12)에 있었는데, 서희가 적장과 담판하여 물러갔고, 제 2 차의 침입은 1010년(현종 1)에 있었다. 제 2 차 침입의 구실은 정변을 일으킨 강조(康兆)를 문책한다는 것이었다. 강조의 정변이란 서북면 사령관이던 그가 정치를 어지럽게 하던 김치양(金致陽)과 그를 총애하던 천추태후(千秋太后)를 제거하고 무능한 목종마저 시해한 후, 태조의 유일한 혈통인 현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글안의 성종(聖宗)이 강조를 문책한다는 구실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히 침입하여 왔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강조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30만 군으로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고려군을 깨트린 글안군이 서북 지방을 휩쓸고 서경으로 침입하여 왔다. 조정에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신들은 차라리 항복하여 사직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 밖에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강감찬 만은 이를 반대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강조에게 있고, 비록 형세가 긴박하기는 하나 크게 걱정할 바는 못됩니다. 적의 병세가 너무 강대하여

중과 부적이기는 하지마는 잠시 그들의 예봉을 피하여 서서히 부흥을 도모한다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니 원컨데 폐하께서는 남쪽으로 난을 피하였다가 적극 항전을 꾀하십시요」라고 하여 회의 분위기를 일변시켰다.

그리하여 현종이 나주로 난을 피하고 하공진(河拱辰)을 개경의 적진으로 보내 현종이 친히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립시켰다. 강화가 성립하여 철수한 글안은 현종이 몸소 조공을 바쳐 오기를 요구하였고 고려에서는 왕이 병환중에 있으므로 글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그러자 글안에서는 고려가 점유한 강동 6주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여 왔다. 고려에서는 강동 6주를 내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곳에 성곽을 구축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와 글안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1018년(현종 9)에 글안의 제 3 차 침입이 있었으니 그들의 침입 이유는 현종의 친조(親朝)와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글안의 침입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한 고려에서는 강감찬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사령관으로 삼아 20만 8천 3백명의 군사로 서북면을 지키게 하였다. 적장 소배압(蕭排押)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의주(義州)로 쳐들어 왔는데, 강감찬이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크게 무찌르니 소배압이 의주를 비켜 개경으로 직향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감찬이 강민첨으로 하여금 이를 추격하게 하여 자산(慈山)에서 무찌르고, 조원(趙元) 또 한 대동강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와 같은 패전을 무릅쓰고 소배압은 이듬 해 정월에는 개경 부근까지 이르렀다가 개경 수비군에게 다시 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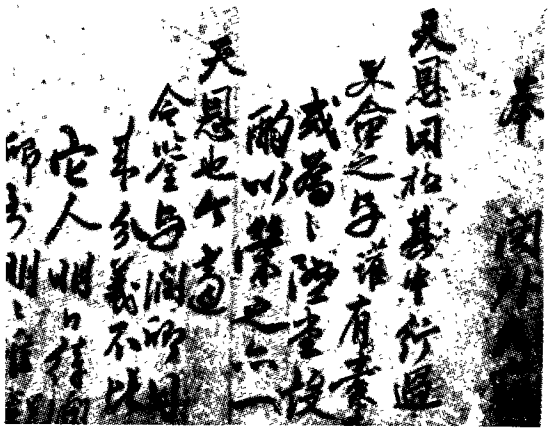
소배압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는데, 강감찬이 패주하는 적을 개천(价川)·영원(寧遠) 등지에서 격파하고 혼란에 빠진 적군이 귀주(龜州)를 통과할 때 이를 맞아 싸웠다. 이 때 비바람이 남쪽으로 부터 불어와 깃발이 북쪽을 가리켜 나부끼자 강감찬이 전군을 몰아 적을 크게 무찌르고 다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무찌르니 적의 시체가 들과 산을 덮었으며, 노획한 말과 병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 싸움에서 살아 돌아간 글안군이 수천명에 불과하였으니 이것이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다. 패전 소식을 들은 글안의 성종이 사람을 보내어 소배압을 질책하면서 「너는 적을 가볍게 보고 적중에 깊이 들어가 오늘의 패전을 가져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다시 보겠느냐. 내 마땅히 네 얼굴 가죽을 벗긴 후 죽이리라」고 크게 노하였다고 한다.

귀주의 대첩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쾌사였다. 그러므로 조야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현종이 친히 개선군을 영파역(迎波驛)까지 마중하여 단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큰 잔치를 베풀어 장병들을 위로하였다. 강감찬이 말에서 내려 절하고 승전을 보고하자 현종이 버선발로 단 아래로 내려가 그를 일으켜세우면서 그의 머리

에 금화(金花) 여덟 가지를 꽂아 주고, 왼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바른 손으로는 술잔을 들어 위로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강감찬과 더불어 개경으로 돌아온 후 다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장병들을 위로하였다.

이 때 강감찬은 이미 7순을 넘은 고령이었다. 그러므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현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작위(爵位)와 공신(功臣) 칭호를 내리고 벼슬을 높혀 수상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1031년(덕종 즉위년)에 84세로 세상을 떠나니 덕종이 장례를 후히 지내도록 하고 그의 시호를 인헌(仁憲)이라 하였으며 현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4. 여진 정벌의 명장 윤관



윤관(尹瓘)은 파평(坡平, 파주군) 사람 윤집형(尹執衡)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고조부는 삼한 공신(三韓功臣) 윤신달(尹莘達)이다. 그의 출생 연대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그는 어려서 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항상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 문종조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가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여진을 정벌한 명장으로서 큰 공훈을 세운 데에 있다.

여진(女眞)족은 원래 만주 동남부 일대에 흩어져 살던 족속인데, 고려에서는 함경남도 지방의 여진을 동여진이라 하고, 압록강 방면의 여진을 서여진이라고 구별하였다. 고려는 태조 때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여진족을 복속시켜 나갔다. 그러나, 무력적인 억압보다는 평화적인 회유책을 썼기 때문에 여진이 고려를 상국(上國) 또는 부모의 나라라 하여 자주 조공하였으며, 아주 귀화하여 오는 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동여진 부족들이 고려의 세력권을 벗어나 고려를 배반하고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고려가 동여진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은 1104년(숙종 9)의 일이다. 동여진에서 완안부(完顔部)라고 하는 부족이 강성하여져서 주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고려에 복속하고 있는 길주(吉州)의 여진족을 공격하였다가 그 패잔병을 추격하여 고려의 변경 요새인 정주(定州)부근까지 출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임간(林幹)을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는데, 임간이 적진 깊숙이 쳐 들어갔다가 오히려 대패하여 물러나고 말았다. 다시 윤관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토벌하게 하였으나, 윤관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고려군이 두 번 다 패전한 것은 여진족이 기병으로 싸우는데 반해 고려가 보병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관이 「적은 기병인데 반하여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에 능히 대적할 수 없읍니다」고 보고하고, 특히 기병을 양성하도록 건의하였다. 숙종이 그의 의견을 받아 들여 별무반(別武班)이라고 하는 특별 부대를 창설하

게 되었다. 별무반은 정규 군대 외에 신기군(神騎軍)이라고 하는 기병과, 신보군(神步軍)이라고 하는 보병, 그리고 항마군(降魔軍)이라고 하는 승려들로 편성한 3개 특별 부대이다. 이 별무반은 거국적인 규모로 편성 되었으니 양반으로 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가진 사람은 모두 신기군에 편입시키고, 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사람을 제외하고 모조리 신보군에 편입시켰다. 승려들도 선발하여 항마군에 편입시키고 밤낮 없이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군량미를 저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숙종은 숙원이던 여진 정벌을 보지 못하고 이듬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진 정벌은 1107년(예종 2)에 단행되었다. 윤관을 사령관, 오연총(吳延寵)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정주를 향해 출발하게 하니 전군의 규모는 17만에 달하였다. 정주에 도착한 윤관은 군사를 4군으로 나누어 수군과 함께 수륙 양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여진족의 본거지인 함흥 평야로 향하였다. 고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그 기세에 압도되어 여진족이 함흥 부근으로 달아나 숨어버렸으므로 윤관이 군사를 나누어 양면에서 공격하게 하여 그들의 태반을 섬멸하였다. 그리고 차례로 여진족의 근거지를 격파하여 조정에 승전을 보고하고 빼앗은 각지에 장수를 파견하여 성을 쌓고 방비를 엄하게 하는 동시에 남방으로 부터 백성들을 대거 이주하게 하였다.

이 때 성을 쌓은 곳을 영주(英州)·웅주(雄州)·복주(福州)·길주(吉州)라 이름하여 점령지를 지키는 근거지를 삼았다. 이듬 해 부터 나머지 여진족을 격파하고 함주(咸州)·공험진(公嶮鎭)·통태진(通泰鎭)·숭령진(崇寧鎭)·진양진(眞陽鎭)에 성을 쌓아 북계의 9성을 삼으니 이것이 유명한 윤관의 9성이다. 이와 같이 9성을 쌓아 북방의 영토를 확장한 후 수비군을 두어 지키게 하고 승전 장군으로서 개선하였다. 예종은 그의 노고를 위로하며 공신에 봉하고 벼슬을 높혀 그 공적을 기렸다.

윤관이 개선한 후 곧 여진족이 다시 공세를 취해 왔으므로 오연총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는 동시에 다시 윤관을 파견하여 점령 지역을 방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진족은 9성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는 한편, 강화를 청하면서 9성의 땅을 돌려 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진족의 강화 요청에 대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는데, 결국에는 개척한 9성의 땅이 너무 넓고 멀어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9성을 돌려 주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9성 철수는 1109년(예종 4) 7월 부터 시작되었다. 윤관은 여진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진 추장들로 부터 자손 만대에 이르기 까지 조공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받고 길주로 부터 차례로 철수하였다. 여진족들은 매우 기뻐하여 그들의 소·말을 동원하여 철수하는 백성들을 실어 보냈다. 이리하여 고려는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정을 소

모하면서 점유한 북방 영토를 허무하게 돌려 주고 말았다.

윤관이 평생의 사업으로 이룩한 동북면의 영토 회복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의에 빠져 회군하는 그에게 그의 공적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윤관은 회군하는 도중에 파면 당하니 왕에게 복명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1111년(예종 6)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니 예종은 그에게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뒤에 문숙공(文肅公)으로 고쳤다. 1130년(문종 8)에는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5. 천태종을 일으킨 의천



대각 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1055년(문종 9)에 문종의 네 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고려에서 불교를 숭상하여 귀족의 자제나 왕자도 중이 되었으니 문종의 10 왕자 가운데 중이 된 왕자가 셋이나 되었다.

문종은 남달리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두터웠다. 그리하여 의천이 태어난 해에 고려에서 가장 큰 흥왕사(興王寺)를 건립하였다. 이 절은 12년에 걸친 공사에 2,800칸에 달하는 거대한 사찰이었다. 문종은 자주 공사장에 드나들면서 공사의 진척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하루는 왕비와 왕자들을 동반하여 공사장을 살펴보고 환궁한 후 왕자들을 보고 「너희들 가운데 누가 출가하여 복전 이익(福田利益)을 짓겠느냐고 물었다. 복전 이익이란 부처를 공양하면 밭에서 먹을 것을 수확하듯 복덕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 의천이 조용히 일어나 「제가 출가하여 아바마마의 뜻을 받들겠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종이 크게 기뻐하여 날을 택하게 하고 그의 머리를 깎게 하니 그의 나이 불과 11세였다.

의천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질이 뛰어났다. 그는 출가하기 전부터 불교 서적을 읽었는데,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에 들어간 이후 부터는 온종일 밖에 한 발도 내어 놓지 않고 불경을 모조리 연구하고, 그 밖에 유교·노장학·역사·제자백가 등의 서적도 언제나 좌우에 놓고 읽었다. 그러는 가운데 스승 경덕국사(景德國師)가 세상을 떠나자 의천이 선배들을 물리치고 영통사에서 불법을 강론하게 되었고, 영통사에는 전국에서 승려들이 밀어 닥쳤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문종은 그에게 우세(祐世)라는 별호를 내리고 교종의 최고 승직인 승통(僧統)을 내리니 그의 나이 13세 때의 일이다.

의천의 불타는 연구열은 마침내 송나라에 들어가 견문을 넓히고 불경을 수집하려고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문종은 당시 글안 때문에 송나라와의 통교가 여의치 못했으므로 송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후, 맏 형인 순종이 왕

위에 올랐으니,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둘 째 형인 선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송나라에 들어갈 것을 청하였다. 선종이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또 한 허락하지 아니하자 드디어 몰래 떠나기로 결심하고 1085년(선종 2) 4월에 선종과 어머니 인예태후(仁睿太后)에게 올리는 글을 써 놓고 제자 2명과 함께 송나라 장사 배에 편승하여 송나라로 향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선종이 어사를 파견하여 추적하게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의천이 건너 온 것을 알게 된 송나라 철종이 특사를 파견하여 국빈으로 맞이하게 하였다. 의천은 철종이 추천한 유성법사(有誠法師)의 안내로 변경(汴京)의 명찰을 두루 방문하고 고승들과 담론하였다. 그리고 철종이 의천을 시중들도록 보내 준 관리 양걸(楊傑)의 안내로 전국의 명찰과 고승 대덕을 찾아 불경을 논하니 그가 대한 고승만도 50명이 넘었다.

의천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교를 탐구하고 있을 때, 본국에서는 선종이 모후의 간곡한 뜻을 받고 송 황제에게 의천의 귀국을 청하였다. 의천은 철종의 부름을 받고 일단 상경하였다가 송나라에 유학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몇 곳을 더 찾은 후 천태산으로 들어가 지자대사(智者大師)의 탑을 배하고 천태종(天台宗)을 고려에 전할 것을 서원하였다.

바쁜 일정을 마친 의천이 마침내 귀로에 오르게 되었다. 송나라에서는 이미 의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송나라 고승 대덕들이 의천을 「법왕(法王)의 진자(眞子)」「해동의 석가」라고 극찬하였고, 그가 귀국할 때에는 모두 송별의 시를 보내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의천이 송나라에 머문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양걸은 의천을 당의 현장(玄奘)보다도, 신라의 의상보다도 훌륭한 고승일 뿐 아니라 5종(宗)을 겸통한 성자라고 말하였고, 한림 학사 소동파(蘇東坡)가 얼마나 의천을 칭찬하였는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의천이 돌아올 때 선종과 태후는 봉은사(奉恩寺)까지 마중나와 그를 위로하고 환영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의천은 귀국하자 흥왕사의 주지가 되어 그 곳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고 불경 간행에 착수하였다. 우선 경전의 총목록을 작성해 그 목록에 따라 하나하나 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4,700여 권에 달하는 고려 속장경(續藏經)이다. 그 뒤 흥원사(洪圓寺) 주지로 옮겼다가 의천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정양하기 위하여 해인사(海印寺)에 입산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양은 오래가지 못하고 왕의 요청으로 다시 흥왕사로 되돌아 왔다. 1097년 (숙종 2)에 천태종의 본산으로서 국청사가 세워지자 그 주지가 되어 천태종을 하나의 종파로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고려 불교는 교종(敎宗)인 5교와 선종(禪宗)인 9산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의천은 이러한 불교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의천이 불교계의 폐단을 가리켜 「원래의 선(禪)은 교(敎)에 있으면서 선을 배웠는데, 오늘의 선은 교를 벗어나 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선과 교를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게 하려는 그의 고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천은 천태종을 세워 고려 불교의 화합을 호소하고 실천함으로써 한국 불교사상에 큰 기둥을 세운 것이다.

의천은 지속적인 강론과 저술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101년(숙종 6)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의 41세였다. 숙종은 그를 국사(國師)에 봉하고 대각(大覺)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6. 동방의 시호 이규보

이규보(李奎報)는 1168년(의종 22)에 하급 관리인 이윤수(李允綏)의 아들로 태어나니 여주 사람이다. 이규보가 태어난 것은 고려의 귀족 정치가 몰락하기 직전이었으니 무신 정중부(鄭仲夫)가 반란을 일으켜 귀족 정치를 타도한 것은 그의 두 살 때 일이다. 이규보는 아홉 살 때 능히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신동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 14세 때 문헌공도(文獻公徒, 최충이 세운 사립 학교)가 되어 공부하면서 부터 그의 재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규보는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낙방한 후 23세 때에야 합격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재주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규격적인 과거 문체(文體)에 힘쓰지 않고 술을 즐겨 마시면서 풍월을 읊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시(詩)·술(酒)·거문고(琴) 세 가지를 지극히 좋아하여 스스로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이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이듬 해인 24세 때 부친을 여의고 천마산으로 들어가 백운거사(白雲居士)라 칭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술하였는데, 이 때의 대표적인 걸작이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인 「동명왕편(東明王篇)」이다.

「동명왕편」은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히는 서문과, 동명왕의 출생에서 고구려의 건국과 그의 종말까지를 묘사한 본장(本章)과 유리왕의 즉위까지의 경로 및 작자의 소감을 붙인 종장(終章)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명왕편」은 그의 26세 때 작품인데, 이 「동명왕편」이야말로 우리 국사상·국문학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작품일 뿐 아니라 북방 민족에게 시달리고 있던 고려인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킨 작품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그는 「김부식이 쓴 삼국 사기가 이를(동명왕 설화) 전하고는 있으나 그 사실이 대부분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 건국의 신적(神迹)을 후세에 전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되어 이 시필(詩筆)을 들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동명왕편」이 아니었던들 동명왕의 사적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규보가 태어난 이듬 해에 정중부 등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귀족 정치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때 많은 문신들이 학살되었고 화를 면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피하였다. 그러므로 무인 정권하에서 문인인 이규보가 벼슬길에 오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규보가 32세 되던 해에 당시 집권자인 최충헌(崔忠獻)에게 접근할 기회가 찾아 왔다. 풍류를 좋아했던 최충헌이 그의 집 정원에

석류꽃이 만발하자 귀빈들을 초대하여 꽃을 감상하게 하고 시인들을 불러 시를 짓게 하였다. 이 때 이인로(李仁老) 등과 함께 참석할 기회를 얻은 이규보는 최충헌의 눈에 들게 되었고 이후 부터 그는 최충헌·최이(崔怡) 부자에게 마음껏 협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6월에 전주의 조그만 외직 하나를 얻게 되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남짓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35세 되던 해에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방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다. 이 때 최충헌이 대규모의 토벌군을 파견하면서 기록을 담당할 문인을 구하였으나 모두들 이를 회피하였는데, 이규보가 이에 호응하여 종군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을 토벌하고 1년 3개월 만에 개선하였을 때, 이규보는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최충헌에게 글을 올려 벼슬을 얻으려고 호소하였으나 소식이 없었으므로 두문불출하게 되었는데, 그가 40세 되던 해에 최충헌이 모정(茅亭)이란 정자를 짓고 시인들을 불러 모정기(茅亭記)를 짓게 하였다. 이 때 이규보의 글이 뽑혀 모정에 걸리게 됨으로써 이규보의 벼슬길이 트이게 되었다.

이규보가 46세 되던 해에 최이가 연회를 베풀고 귀빈들을 초청하였을 때, 이규보는 8품의 하급 관리이면서 부름을 받았다. 밤중이 되자 최이가 이규보에게 글짓기를 청하였는데, 40여 운(韻)을 단숨에 지어 내자 최이가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이튿 날 최이가 그의 시를 가지고 최충헌에게 가서 보이고 이규보를 시험해 보도록 청하였다. 최충헌이 이규보를 불러 술을 내리고 시를 짓게 하였더니, 또 한 40여 문을 단숨에 써 내려가므로 최충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탄하였다. 그가 물러나려 하자 최충헌이 그에게 바라는 벼슬을 말하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이제 8품이니 7품이면 족하겠읍니다」라고 대답하여 7품으로 올랐다. 이와 같이 이규보는 집권자인 최충헌 부자의 눈에 들게 되므로써 이들에게 적극 협조하였다.

1230년(고종 17)에 팔관회(八關會) 문제로 귀양갔다가 이듬 해 여주를 거쳐 상경하였는데, 이 해 8월에 몽고군이 제1차로 침입하여 왔다. 그리하여 몽고에 보내는 글은 거의 그에게 맡겨졌다. 이듬해인 그의 65세 때 복직이 되어 여러 관직을 거친 후 70세에 물러났는데, 물러난 후에도 몽고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작성되었다.

1241년(고종 28)에 이규보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최이는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문집을 간행하여 주려고 인쇄공을 모아 서둘렀으나 이규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서거정(徐居正)은 이규보를 「동방의 시호(詩豪)는 이규보 한사람 뿐이다」라고 평하고 있는데, 그는 「동명왕편」 하나만으로도 그의 문장은 천고에 남을 시호였다.

7. 몽고군을 물리친 박서

박서(朴犀)는 죽산 사람으로 호부 상서 박인석(朴仁碩)의 아들로 태어났다. 박인석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고 또한 글 읽기를 좋아하여 8세 때 세자의 학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서의 출생 연대나 소년 시절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무장으로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보아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예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1231년(고종 18)에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박서는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서북 방면을 수비하고 있었다. 몽고가 침입하게 된 것은 몽고 사신 저고여(著古與)의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악화된 때문이다. 고려가 몽고와 접촉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양국이 연합하여 강동성(江東城)에 집결한 글안족을 토벌하면서 부터이다. 만주에서는 글안족을 정복하고 여진족이 일어났는데, 새로 몽고가 등장하여 여진족을 공격하자 만주에서 여진족의 형세가 나빠지게 되었다.

이 틈을 타서 글안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가 몽고군에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 고려 경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 글안인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산과 들에 편만하여 곡물과 우마 등을 약탈 취식하다가 고려군에 패퇴하여 만주로 쫓겨났는데, 다시 3만여명이 개경의 선의문(宣義門)에 까지 쳐들어 왔다가 동으로 향하여 철원·춘천·원주 등지를 약탈하고 그 일파가 여주를 침범하다가 김취려(金就礪)에게 패하여 제천·강릉을 거쳐 여진 땅으로 도망했다.

그런데, 이듬 해인 1218년(고종 5)에 글안인이 또 다시 대거 침입하여 변경 지방을 어지럽히다가 평양 부근의 강동성에 웅거하였는데, 이 강동성을 양국이 연합하여 토벌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양국의 접촉이 시작되었는데, 몽고는 글안족을 토벌한 것으로써 고려에 큰 은혜라도 베푼 듯이 은인임을 자처하고 거의 매년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여 왔다. 1221년(고종 8)에 사신으로 온 저고여는 오만 불손한 태도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고 품 안에서 전번에 보낸 세포(細布)를 꺼내 국왕에게 던지면서 불평의 기색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저고여가 1224년(고종 11)에 공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재차 왔다가 이듬 해 정월에 돌아가면서 의주에서 돌연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고려와 몽고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던 여진족이 양국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이므로

고려에서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몽고에서는 고려를 의심하여 국교를 끊더니 마침내 침입하여 오니 이것이 몽고의 제 1 차 침입이다.

압록강을 건는 몽고군이 의주·철산 등지를 함락시키고 계속 남하하여 귀주(龜州)에 이르렀다. 서북면 병마사인 박서는 부근 여러 성진(城鎭)의 장수들을 귀주성으로 집결시키고 성을 지켰다. 몽고군은 여러 겹으로 귀주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몽고군이 공격하여 올 때마다 성중에서 성문을 열고 쳐 나가 그들을 패주시켰다. 그러자 몽고군은 수레에 소가죽으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군사를 싣고 성 밑으로 육박하여 굴을 팠다. 박서는 성에 구멍을 뚫고 불에 녹인 쇳물을 내려 부어 수레를 태우고, 마른 잡초에 불을 붙여 상자마저 태워버리니 적이 놀래어 흐트러졌다.

다시 몽고군은 큰 돌을 날리는 대포차 15개로 성 남쪽을 공격하여 왔는데, 박서가 성 위에서 포차로 돌을 날려 물리쳤다. 다음에는 몽고군이 사람의 기름을 적신 섶에 불을 붙여 화공(火攻)하여 왔으므로 박서는 진흙을 물에 적셔 던지게 함으로써 불을 껐다. 몽고군은 또 수레에 풀을 싣고 불을 붙여 화공하여 왔으나 박서가 미리 다락 위에 물을 비치하였다가 꺼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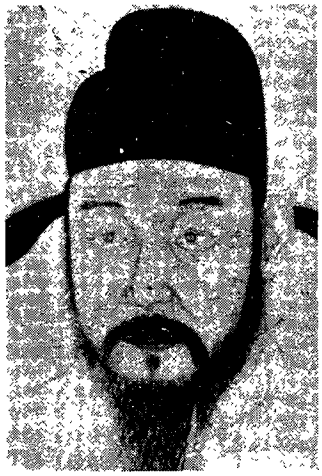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몽고군은 귀주성을 포위하고 30일 동안이나 여러 가지 공성(攻城) 무기를 동원하여 백가지 계교로 공격하였으나 박서는 그때마다 임기 응변으로 대처하여 성을 굳게 지키므로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다시 서북 지방 여러 성의 군사를 몰아 가지고 와서 포차 30개로 성벽 50간을 파괴하였는데, 박서는 성벽이 무너지는대로 보수하고 성 밖으로 쳐 나가 그들을 대파하였다. 그 뒤 또 다시 몽고군이 대포차로 공격하여 왔으나 박서도 포차로써 대적하니 몽고군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나 책(柵)을 세워 둔치고 그 곳을 지켰다.

이 때 개경에서는 이미 몽고와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적장 살리타이(撒禮塔) 군영에 종친 회안공(淮安公)을 보내어 화의를 교섭 중에 있었으므로 살리타이가 우리 통사를 시켜 회안공의 서신을 가지고 귀주로 가서 박서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더욱 성을 굳게 지켰다. 그러자 몽고군은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여 왔는데, 박서가 큰 칼로 모조리 분쇄하니 접근조차 못하였다.

이듬 해 정월에 강화가 성립되어 몽고군이 철수할 때에 고종이 감찰어사 민희(閔曦)로 하여금 몽고인을 데리고 가서 강화가 성립한 것을 알리는 동시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서가 듣지 않으로 민희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박서는 더 이상 왕명을 거스릴 수 없이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박서가 항복한 후 귀주성을 둘러 본 몽고의 한 늙은 장수가 말하기를 「내가 천하에 수많은 공성전을

보았으되 이와 같이 맹렬한 공격을 받고도 마침내 항복하지 아니한 사례는 일찌기 보지 못하였다」고 탄식하였다 한다. 박서는 항복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뒤에 문하 평장사(門下平章事)를 제수받았다.

8. 만인의 재상 황희



황희(黃喜)는 1363년(공민왕 12)에 개경에서 벼슬하는 황군서(黃君瑞)의 아들로 태어났다. 황희는 훤칠하게 잘 생긴 얼굴에 총명이 뛰어났다고 한다. 21세 되던 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는데, 본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학문에 정진하다가 27세 되던 해에 부모의 강권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이듬 해에 벼슬길에 올랐다.

그런데, 그가 벼슬길에 나아간지 3년 째인 30세 되던 해에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성립하였다. 그리하여 황희는 여러 고려 구신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여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고 초근 목피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주위에는 정치에 어두운 장수들이 많았으므로 경사(經史)에 밝고 정사에 능한 사람을 찾아 자기의 보필을 삼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뜻을 두문동에 전하게 하였는데, 두문동에서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태조의 소행은 밉지마는 나라와 백성은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덕망이 높고 장래가 유망한 황희를 신왕조에 내어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황희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강권에 못이겨 신왕조에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신왕조에 들어간 황희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조선 왕조를 등졌다가 다시 뽑혀 들어온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태조 조차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별 잘못도 없이 좌천되거나 파직되기 일쑤였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점차 그의 역량이 인정되어 1405년(태종 5)에는 지신사(知申事, 뒤에 도승지로 고침)가 되어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으니 그의 나이 43세 때의 일이다. 태종은 3, 4일만 그를 보지 못하여도 정사가 안심이 되지 않아 그를 불러 들였다. 그 후 황희는 조정의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고 그의 나이 47세에서 56세에 이르는 동안 6조(曹)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황희는 1416년(태종 16)에 태종이 세자인 양령대군(讓寧大君)을 폐하려고 하자 이

를 반대하다가 좌천되었는데, 1418년(태종 18)에 세자가 광주로 폐출되고 아우인 충령대군(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황희가 다시 이를 반대하다가 관직을 빼앗기고 평민이 되어 교하(交河)로 유배 되었다. 이 때 황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음으로 태종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남원(南原)으로 유배하면서 특별히 금부도사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와 부인을 따라가게 하였다. 남원에 유배된 황희는 문을 잠그고 일체 손님을 거절하였다. 남원은 그의 선대가 오래 살던 곳일 뿐 아니라 그의 부친이 세워 놓은 서재가 남아 있었다. 황희는 이 서재를 보수하여 광통루(廣通樓)라 이름짓고 근 5년간을 독서에만 열중하였는데, 광통루는 뒤에 광한루(廣寒樓)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1422년(세종 4)에 귀양이 풀려 상경하였다. 이 때 태종은 이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서 중요한 국사를 처결하고 있었는데, 황희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불러 올려 세종에게 그를 후하게 대접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황희는 의정부 참찬(參贊)으로 등용되었다가 그가 65세 되던 1427년(세종 9)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그 후 일시 좌의정에서 물러나 파주 임진강 변의 반구정(伴鷗亭)에서 한가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69세 때인 1433년(세종 15)에 영의정이 되었다. 그리고 87세에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동안 18년간을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을 도와 세종대의 태평성대를 이룩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90세 되던 1452년(문종 2)에 세상을 떠나니 문종은 그에게 익성공(翼成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황희는 성격이 관후하고 심중하며 대체에는 밝은 대신 사소한 일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많은 일화들이 전하고 있다. 하루는 종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노비가 황희의 방에 들어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 말을 들은 황희는 과연 네 말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자 얼마 안가서 다른 노비가 들어와서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였다. 그러자 황희는 「과연 네 말이옳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사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는 법인데, 쌍방이 다 옳다 하시니 그리고서도 어떻게 정승노릇을 하십니까」하였다. 이 말을 들은 황희는 태연히 「부인의 말도 또한 옳다」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조정의 일에 대하여는 사리가 밝을 뿐 아니라 서릿발 같은 위엄이 있었다. 김종서(金宗瑞)는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6진(鎭)을 개척한 사람으로서 대호(大虎)라는 별명을 듣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거만하고 방약무인의 태도가 많았다. 하루는 영의정인 황희 앞에서 걸상에 기대여 앉은 그의 자세가 몹시 삐뚜러져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이 때 황희는 시치미를 떼고 하인을 불러서 「저 병조 판서 대감이 앉은 걸상의 한 쪽 다리가 짧은 모양이니 얼른 나무토막

을 가져다가 피어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김종서가 곧 뜰로 내려가 엎드리고 사죄하였다. 나중에 김종서는 다른 사람에 말하기를 「내가 여진을 정벌할 때 적장이 쏜 화살이 책상 앞에 꽂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황정승에게 혼이 났을 때에는 등에서 씩은 땀이 흐르더라」 하였다 한다.

황희는 평상시에 항상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한번 눈을 부릅뜨면 누구나 마주 바라보지 못할 위엄이 있었다 한다. 문산에는 반구정과 영당(影堂)이 있고 영당에는 그의 영정이 걸려 있다.

9. 기개에 빛나는 유응부

유응부(兪應孚)는 포천 사람인데, 그 출생 연대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그는 용모가 장엄하고 힘이 뛰어났으며 일찍기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세종, 문종의 총애를 받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평안도 절도사(節度使) 등을 거쳐 1455년(세조 1)에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올랐는데,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실패하였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문종이 뒤를 이었다. 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선비들을 사랑하였는데, 몸이 약해 왕위에 오른지 2년 3개월 만에 39세로 세상을 떠나고 단종이 왕위에 오르니 단종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문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의 단명을 예측하고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 중신과 집현전 학사들에게 나이 어린 세자의 호위를 누누히 당부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들이 왕을 보필하고 협찬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왕족간에 골육 상쟁이 벌어져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세종에게는 18왕자가 있는 가운데 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 소생이 8명으로서 문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7명의 왕자 위세가 대단하였으며, 더우기 수양 대군(首陽大君)은 야망과 수완이 비범하였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7명의 숙부들이 저마다 다투어 빈객(賓客)을 포섭하고 세력의 확장을 꾀하니 문인들은 많이 안평대군(安平大君)에게로 몰리고, 무사들은 수양 대군에게로 모이게 되었다. 수양 대군은 모사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외에 유능한 무사 30여명을 모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1453년(단종 1) 10월에 변을 일으켜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 가운데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김종서를 집으로 습격하여 죽인 후 단종에게 「김종서가 모반하므로 죽여 없앴으나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계(上啓)할 틈이 없었다」고 아뢰고 곧 왕명이라 속여 대신들을 소집하여 대궐로 들어오는 황보인 등을 죽였다. 그리고 안평 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과 결탁하고 음모를 꾀하였다고 억지로 죄를 씌워 강화로 유배시켰다가 뒤에 사약을 내렸다.

수양 대군은 이 정변으로 일시에 정권을 장악하여 중요 관직을 모두 겸직함으로써 정권과 아울러 병권마저 장악하였다. 그리고 정변에 공이 많은 정인지(鄭麟趾) 등 37

명에게 공신 칭호를 주었다.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 헛된 자리만을 지키고 있던 단종이 1455년(단종 3)윤 6월에 왕위를 양위하여 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세조의 즉위가 비록 선양(禪讓)의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계략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므로 구신들 가운데에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세종의 신임을 받던 집현전 학사 성삼문(成三問)과 장군 유응부 등이 이에 반감을 가지고 단종의 복위 운동을 꾀하게 되었다.

이들은 1456년(세조 2) 6월에 돌아가는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거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회에서 유응부와 성승(成勝)이 운검(雲劍, 왕 양편에 칼을 들고 지켜 서는 것)이 되어 세조를 살해하기로 하였는데, 눈치를 챈 세조가 운검을 폐하였으므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때 분을 참지 못한 유응부가 주먹을 휘두르며 「권람, 한명회 쯤은 이 주먹으로 충분한데, 큰 칼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그대로 거사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여러 동지들의 만류로 후일을 기약하게 되었다. 사태가 성공하지 못함을 본 김질(金礩)이 밀고함으로써 거사 계획이 탄로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성삼문·유응부 등이 잡혀 국문을 당하게 되었다. 유응부는 「상왕을 복위시키려다가 불행히도 간신들의 밀고로 일을 그르쳤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하겠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생들과는 일을 함께 도모할 것이 못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도다. 지난 번에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만류하더니 오늘 이와 같은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 무모함이 어찌 그러한가」라고 말하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불로 살을 지졌으나 얼굴색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지는 쇠를 빼앗아 땅에 던지면서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너라」하고 끝내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성삼문·유응부·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 등이 형국 끝에 살해되고 유성원(柳誠源)이 자결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사육신」이라 불렀다.

유응부는 벼슬길에 오른 후 항상 청빈하여 거적으로 문을 가리고 육식(肉食)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효성은 남달리 지극하여 노모의 봉양에 필요한 물건은 항상 유념하여 두었다고 한다. 유응부는 무인이면서도 유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데, 그가 지은 시조 몇 수가 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중의 하나이다. 「간 밤에 불던 바람 눈서리 치단 말가. 낙낙 장송이 다 기울어지단 말가.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또 그가 지은 시로서 「장수가 되어 굳은 마음 오랑캐의 변경을 진압하니, 요새는 튼튼하고 평화로우며 사졸이 조는구나, 5천의 군마는 버드나무 아래 태평하고, 가마귀 3백 마리가 누각 앞에 앉았구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는 그의 기개를 엿보게 한

다. 유응부는 숙종 때 관직이 회복되어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과천의 민절서원(愍節書院)에 배향되고 그 외 함흥의 창의사(彰義祠) 등 5개 서원에 배향되고 있다.
단종의 복위 운동에 관련된 사람은 「사 6 신」 외에 70여 인에 달하였는데, 상왕인 단종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 하여 노산군(魯山君)으로 내리고 영월로 방출하였다가 사약을 내렸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나이가 17세였다.

10. 여진 정벌의 명장 어유소

어유소(魚有沼)는 1434년(세종 16)에 양주에서 어득해(魚得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456년(세조 2) 무과에 장원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1460년(세조 6)의 여진 정벌에 공을 세워 벼슬이 높아지고 1463년(세조 9)에는 회령부사(會寧府使)가 되었다.

그런데, 1467년(세조 13) 5월에 함길도에서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자 어유소는 좌대장이 되어 이시애의 반란을 토벌하였다. 이시애는 일찌기 회령부사를 지냈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관직을 지낸 길주(吉州)의 호족이다. 세조가 왕권을 확립한 뒤 차츰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자 자신의 지위 확보에 불안을 느낀 이시애가 반란을 꾀하게 되었다.

때마침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을 사퇴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던 이시애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우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본도 절도사가 각진의 장수들과 함께 반란을 음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함길도 병마절도사 강효문(康孝文)과 길주목사 설징신(薛澄新)을 죽이고, 조정에도 그렇게 보고한 후 본도인으로서 각읍의 수령을 삼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각읍에는 「지금 남도의 군사가 바다와 육지 양면으로 쳐 올라와서 함길도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고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함길도의 각읍에서는 다투어 수령을 죽이고 이에 호응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강순(康純)·어유소·남이(南怡)를 대장으로 삼아 6도의 군사 3만명을 징발하고 함흥에 집결하게 하여 이시애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하였다. 토벌군은 홍원(洪原)·북청(北靑)을 돌파하고 이원(利原)에서 반란군의 주력 부대를 깨트렸다. 그러자 이시애가 길주로 패주하여 재물을 싣고 여진 땅으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길주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투항함으로써 난이 진압되었다. 어유소는 이 난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의 칭호를 받고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어유소 등이 이시애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북상하였을 때, 마침 명나라가 여진족 건주위(建州衛)의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려고 조선에 대하여 양편에서 합동으로 공격하자고 요청하여 왔으므로 강순·어유소·남이 등이 이시애의 난을 토벌한 후 세조의 명으로 길주에서 바로 압록강을 건너가 만주 흥경(興京)부근의 건주위 본거지를 공격하여 이만주와 그 아들을 죽이는 등 큰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다. 세조가 이 승리를 명나라에 통고하였는데, 이로써 조선과 명나라의 어려운 문제였던 여진 문제가

해결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시대에 자주 변경을 어지럽히던 여진족이 금제국(金帝國)을 건국하였다가 몽고에 정복되어 그 지배를 받아 왔는데, 고려 말기에 원과 명의 세력이 교체되기 시작하자 만주가 고려·명·북원 세 세력의 쟁점으로 되어 왔으나 명나라가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여 여진족을 복속시키고 만주에서 명의 우위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의 세력은 압록강 서쪽의 요동 평야를 넘지 못하였으니 조선·명 양국지배권 밖 넓은 지역의 여진족들은 자주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은 이 지역에 대한 경략을 계속하여 대대적인 정복을 단행하는 한편, 회유정책을 써서 조공을 바쳐 오는 추장들에게는 그 세력권 안에 위(衛)를 설치하고 그 지휘권을 주어 명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시켰다.

조선에서는 명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여진족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책을 써서 조공을 바쳐오는 추장에게는 벼슬과 생활 용품을 주고, 경성(鏡城)과 경원(慶源)에 무역소를 두어 물물을 교환하게 하였다. 그러나, 태종 때 부터는 여진족들이 자주 변경 지방으로 침입하여 왔으므로 1484년(세종 15)에 김종서을 파견하여 북방을 개척하게 하니 그가 6진(鎭)을 개척하고 남방의 백성들을 이주하게 함으로써 약간의 지역을 제외하고 두만강 이남이 모두 조선의 영역으로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진 설치에 압박된 여진족의 대부분이 압록강 중류 지방으로 이주하여 건주위의 이만주와 합류하게 되었다.

이 건주위의 여진족이 자주 조선으로 침입하여 왔으므로 세종이 최윤덕(崔潤德)을 파견하여 정벌하게 하고, 다시 이천(李蕆)을 보내어 그들을 정벌하게 하여 4군(郡)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 방면의 경영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4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지키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여진족과의 충돌이 잦아서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4군을 폐지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건주위의 여진족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이들에게 자주 요동 지방을 침범 당하던 명나라가 우리와 합동으로 양쪽에서 일제히 공격하자고 요구하여 왔으므로 마침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어유소 등이 곧바로 압록강을 건너 건주위의 본거지를 공략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유소는 여진 정벌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공신으로 봉해졌으며, 함경북도 절도사와 도총관(都摠管) 등을 역임하고 병조 판서를 거쳐 1478년(성종 9)에는 우찬성(右贊成)에 올랐다. 그런데, 1479년(성종 10)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다시 여진족의 건주위를 토벌하게 되었는데, 어유소가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만포진까지 이르렀으나 압록강의 얼음이 녹아 작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철군하고 말았다. 이 일로 어유소는 양근으로 유배되고 좌의정 윤필상(尹弼商)을 보내 여진족의 본거지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어유소는 이듬 해 풀려 나와 이조 판서 등을 지내고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으로 있다가 1489년(성종 20)에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정장(貞莊)이라 하였다.

11. 화담 선생 서경덕

서경덕(徐敬德)은 1489년(성종 20)에 개성에서 하급 관리인 서호번(徐好蕃)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경덕은 개성 동문 밖 화담(花潭) 위에 초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호를 화담이라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화담 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어려서 부터 천성이 총명하고 정직한 성품을 타고 났으나 집이 가난하여 거의 독학으로 글을 배웠다.

14세 되던 해에 서당에 가서 상서(尙書)라고 하는 책을 배우는데, 어떤 대목에 이르자 훈장이 「이 장의 글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읽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경덕은 「알 수 없는 글을 무슨 이유로 경전에 올렸을까」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15일 동안 수천 번을 읽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

19세 되던 해에 대학(大學)이란 책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사람이 되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선비가 되어서 그것을 규명하지 못하고서야 글을 읽어 무엇하랴」고 중얼거렸다. 그의 학문하는 태도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먼저 생각한 후 글을 읽는 방식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사색에 치중함으로써 진리를 터득한 후에야 책을 읽어 오직 그 도리를 확인하려는 태도였다. 21세 때에는 영남, 호남 지방의 명산을 찾아 3년간 유람하기로 하였다.

31세 때 현량과(賢良科)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이 때 서경덕은 진리를 캐내는데 대한 기쁨에 도취되어 벼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너무나 연구에 열중한데다가 가난하여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으므로 체력이 감퇴되고 신경이 쇠약해져서 34세 되던 해에 속리산·지리산 등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여 1년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사색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 때 그는 기행문과 몇 편의 시를 쓴 바 있는데 「산에 나물 캐고 물에 낚시질하면 주림을 면하고, 사연을 읊고 노래하면 내마음 기를 펴리. 의심 없는 곳에 다달아 쾌활을 느끼노니 백년을 헛되이 사는 사람 안된게 다행이네」 하는 시는 그가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굳건히 삶을 즐긴 자신의 뜻을 읊은 것이다.

43세 때 어머니의 청으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생원(生員)이 되었으나 벼슬과 부귀에 뜻이 없어 끝내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과 덕망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게 배우려고 모여드는 유생들이 많았다. 그가 학문 연구와 제자들 교육에 전념하면서

안빈낙도하던 모습을 이율곡(李栗谷)은 「솥 불 끊은 지 이틀, 해는 이미 오정이다. 강론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곤췌의 빛도 없도다」라고 읊었고, 제자 허엽(許曄)은 「이끼는 솥에 찼건만 거문고는 소리 높이 타도다」라고 찬탄하였다.

서경덕이 56세 때에는 대제학 김안국(金安國)과 대신들이 천거하여 후능 참봉(厚陵參奉)으로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 해 겨울 부터 앓아 눕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네 편의 저술 초고를 끝내고 「성현의 말은 이미 모두 선유들에 의하여 주석되었으니 다시 할 필요가 없으나 내 이제 아직 설파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이 네 편을 초고하노라」고 하였다. 1546년(명종 1)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58세였다. 8월에 화담 뒷 산에 안장되었는데, 그의 묘비에는 「생원 서경덕의 묘」라고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선조가 우의정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강(文康)이라 하였다.

서경덕은 그의 생애를 선비들이 서로 분열 대립하여 여러 차례의 사화(士禍)를 빚는 혼탁한 시대에 살았다. 그러므로 천성이 영욕(榮辱)에 개의치 아니하고 고답적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관계와 인연을 끊고 평생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게 된 것은 이러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특히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치른 이 후 부터는 유생들 가운데 관계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고향이나 산림으로 들어가 학문을 연구하면서 제자들과 도학(道學)을 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그의 선배인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 등이 화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이 관계로 진출하는 매개체가 되는 반면에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아는 서경덕은 유학을 정치적인 출세 도구로서 보다는 자신의 진리 체험을 위한 학문적 이치로만 받아 들여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므로 서경덕은 조정이나 벗으로 부터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성리학(性理學)은 주자의 이기설(理氣說)을 주종으로 하고 있었는데, 서경덕은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제창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송도 3절(松都三絶)이라는 말이 있다. 당시 명기이며 여류 시인으로 이름났던 황진이(黃眞伊)가 서경덕을 연모하여 노래·춤·거문고·술로써 자주 그를 찾았으나 그는 도학자로서의 자세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었다. 30년간을 산중에서 벽을 바라보며 불교에 전념하던 지족선사(知足禪師)도 그의 미색에 농락되어 30년 공이 허사로 돌아갔으나, 서화담 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유혹하여도 움직이지 아니하자 황진이는 송도의 3절로서 박연폭포(朴淵瀑布)와 서경덕, 황진이 이렇게 셋을 꼽았다고 한다.

12. 동방의 대현 이이

이이(李珥)는 1536년(중종 31)에 강릉 외가에서 이원수(李元壽)의 세 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를 율곡(栗谷)이라 하였는데, 율곡은 그의 고향인 파주 율곡촌의 이름을 딴 것이다. 율곡의 어머니는 시·서·화의 3절(三絶)이라고 하는 사임당(思任堂) 신씨(申氏)이다. 율곡이 출생하던 날 밤 사임당 신씨 꿈에 검은 용이 큰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와 서리었다 하여 어릴 적 이름을 현룡(見龍)이라 하였다.

율곡은 어릴적 부터 총명하여 3·4세 때 부터 어머니에게 말과 글을 함께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다. 6세 때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고 8세 때에는 파주의 율곡으로 내려가 살면서 화석정(花石亭)에 올라가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6세 되던 해에 어머니요, 스승인 사임당의 상을 당하여 애통하던 나머지 3년 상을 벗은 다음 금강산으로 들어 갔다. 그러나, 1년을 넘기지 아니하고 하산하여 강릉 외가에서 학문에 정진하다가 21세 때 서울로 올라와 한성시(漢城試)에 장원하여 명성을 떨쳤다.

23세 때에는 예안(禮安)의 이퇴계(李退溪)를 방문하고 도를 물었다. 이 때 퇴계는 58세의 원숙한 노대가였는데, 그와의 대화에서 그의 재질과 학문의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뒤에 퇴계는 「후생이 가외(可畏)라는 성현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한다. 이 후부터 율곡과 퇴계는 서신의 왕래를 거듭하면서 학문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나누었다. 율곡은 집의 가난과 가족의 권고로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아홉번이나 장원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9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불렀다.

율곡은 29세 때인 1564년(명종 1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해마다 승진을 거듭하여 39세 때에는 대사간(大司諫)에 오르고, 46세 때에는 대사헌(大司憲)과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역임하고, 47세때에는 이조·형조·병조 판서를 거쳐 48세 때 우참찬(右參贊)에 올랐다. 이와 같이 율곡은 벼슬길에 분망하였으나 학문과 교육도 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시의 정계는 분열과 시비로 어수선하던 때였으므로 율곡은 병을 칭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를 붙여 자주 관직을 사퇴하고 파주 율곡이나, 해주 석담(石潭)으로 퇴거하여 문학연구와 후생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해주는 그의 처가가 있는 곳이므로 1577년(선조 10)에 그 곳에 집을 짓고 서모

·형수·아우의 가족까지 한 집에 모아 놓고 같이 살았다. 그리고 석담 부근은 마치 주자(朱子)의 무이 9곡(武夷九曲)과 같이 물이 아홉 굽이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중 제 5 곡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리하여 이 곳에 「은병정사(隱屛精舍)」라는 학사를 지었다. 그리고 정사 북쪽에 주자를 주위(主位)로 하고 조광조(趙光祖)와 이퇴계를 배향하는 주자사(朱子祠)를 지으려다 선조에게 소환되어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학문은 그가 조광조와 이퇴계를 숭모한 만큼 이들의 학문과 사상이 율곡 사상의 원류가 되었지만 율곡은 퇴계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반대하여 「기발 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함으로써 유학사상에 수백년 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율곡은 병조 판서이던 1583년(선조 16)에 10만 양병론(養兵論)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경연(經筵) 석상에서 「10년을 넘지 못하여 장차 큰 외환이 있을터이니 미리 군사 10만을 길러 대비하자」고 제창하였는데, 그가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지 10년 만인 1592년(선조 25)에 임진 왜란이 일어났다.

또한 율곡이 41세 되던 1575년(선조 8)에 분열 대립하고 있던 있던 관리와 선비들이 동·서 양당으로 갈라져 싸우게 되었다. 당쟁은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사감에서 비롯하여 심을 옹호하는 파를 서인(西人)이라 하고, 김을 옹호하는 파를 동인(東人)이라 불렀다. 이 때 율곡은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 동서 양파의 타파와 화합을 위하여 혹은 왕에 권하여 시비의 장본인인 두 사람을 외직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혹은 양파의 극렬분자에게 서로 합심 협력하여 국사에 진력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양파 세력을 균형 있게 하려고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서 양파 중 어느 한 파를 두둔하지 아니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했으나 서인 중에 그의 친지가 많았기 때문에 동인 쪽에서는 율곡이 서인을 옹호한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동인들은 율곡을 미워하여 조그만 구실이라도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왕에게 그에 대한 파면을 청하였다. 그러므로 율곡은 여러차례 죄를 청하고 사직할 것을 청했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율곡은 이조판서에 취임한지 3개월 만인 1584년(선조 17) 정초 부터 병석에 눕게 되었다. 선조가 그의 병환을 우려하여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49세였다. 시호를 문성(文成)이라 하고 1682년(숙종 8)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13. 오리 정승 이원익



이원익(李元翼)은 1548년(명종 3) 금양(衿陽, 지금의 김포군 지방)에서 왕실의 후손인 이억재(李億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호를 오리(梧里)라 하였으므로 세상에는 그의 이름보다도 오리 대감·오리 정승 또는 키 작은 대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천성이 단조롭고 댓결 같이 곧아서 자기의 할 일만 할 뿐, 남과 잘 어울려 다니거나 자기를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1569년(선조 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가 황해 도사(黃海都事)가 되었을 때, 마침 이율곡이 감사로 부임하여 그에게 크게 신임을 받기도 하였고, 그가 안주목사(安州牧使)가 되었을 때, 누에치는 법을 모르던 그 지방에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이원익은 이조 판서 겸 평안도 도순무사(都巡撫使)가 되어 선조보다 먼저 평양으로 가서 그 곳을 지켰다. 사태가 불리하여 선조가 다시 의주로 피난하자 이원익은 윤두수(尹斗壽)·김명원(金命元)과 함께 평양에 남아서 그 곳을 지켰으나 평양이 함락된 후에는 안주로 후퇴하여 대동강 서북 지방을 수비하였다. 명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하자 이원익은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을 수복하고 선조가 환도한 후에도 평양에 남아 군사를 훈련하면서 그 곳을 지켰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의정에 오르고 4도 도체찰사(都體察使)와 영원수부사(領元帥府事)를 겸하여 작전의 큰 임무를 맡았는데, 자주 지방을 순시하며 전후의 복구에 진력하였다. 이 때 선조는 노령인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성주(星州)에 머무르면서 군기를 바로 잡았는데, 어찌나 공정하고 엄격하였는지 영을 어기는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였다.

1596년(선조 29)에 정유 재란(丁酉再亂)이 시작되었을 때, 이순신이 간신들의 시기와 당쟁에 희생되어 투옥되자 이는 국가를 그릇치는 중대한 일이라 하여 선조에게 강력히 항변하기도 하였다. 원균이 패한 후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등용한 데에는 이원익의 막후 노력이 컸다. 명나라 군사가 다시 구원군으로 도착하자 체찰사인 이원익

은 도원수인 권율과 함께 부흥군을 설치하고 8도에서 군사를 소모하여 명군과 함께 일본군을 격퇴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임진 왜란이 종결된 후 이원익은 공신에 오르고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었는데, 1615년(광해군 7)에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홍천으로 유배되었다. 광해군은 당쟁에 휩쓸려 북인(北人)들의 압력으로 임해군(臨海君)을 죽이고, 영창 대군(永昌大君)도 죽였으며, 왕모마저 폐위하려고 하자 이원익이 죽음을 무릅쓰고 폐모를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1619년(광해군 11)에 풀려나 여주로 옮겼다가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북인이 몰락하고 남인(南人)이 집권하자 이원익은 다시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서울의 시민들은 그가 돌아 오자 상공(相公)이 돌아왔다고 크게 축하하여 마지 않았다 한다.

인조 반정 이듬 해에 이괄(李适)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이르키자 이원익은 도제찰사로 왕을 모시고 공주로 난을 피하였고, 1627년(인조 5)에 정묘 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인조가 강화로 피난하였을 때 그는 왕세자를 모시고 전주로 난을 피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어 서울로 돌아왔으나 이미 그의 나이가 79세의 노령이었으므로 인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다가 1634년(인조 12)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87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가 크게 애통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후히 보내고 경기 감사를 보내 호상토록 하였다. 효종은 그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인조 묘정에 배향하였다.

이원익은 임진 왜란·인조 반정·이괄의 난·정묘 호란과 같은 전란과 당쟁속에서 세 임금을 섬긴 충신이며, 또한 많은 업적을 쌓은 훌륭한 정치가 였다. 그러나, 이원익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업적보다도 오리 정승 또는 오리 대감으로서의 그의 인간됨에 있다. 이원익의 생활 태도는 지극히 소탈하고 검소하였다. 그는 오랜 동안 벼슬자리에 있었고 재상자리를 몇 번이나 역임하였으면서도 그 가사는 집은 비바람조차 가리기 어려운 두어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집이었다. 그의 노환이 침중하여 누어 있어도 약 한 첩을 쓸 여유가 없었고 끼니조차 변변히 잇지 못하였다.

인조는 가끔 이원익이 지내는 모습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들으면 「나라의 기둥인 그를 잘 보살펴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두어서야 되느냐」고 꾸지람을 한일도 여러차례였으며, 약과 식량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승지나 내시를 그의 집에 보내 안부를 알아 오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원익은 인조의 각별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 이원익이 앓고 있을 때, 인조는 친히 문병차 그의 집으

로 행차하려고 까지 하였다. 이원익이 노령에 병이 무거워 여러 번 영의정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인조는 매양 「대궐에 들어 오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서 조리하면서 국사를 보살펴 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간청하였다.

이원익이 홍천의 귀양에서 풀려 여주로 옮겼을 때, 그 곳 호장(戶長)의 집에 거처하면서 돗자리를 짜서 팔고 있었다. 이 때 호장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원익이 몸소 나서서 장례를 치뤄 주었다. 뒤에 장현광(張顯光)이 이 사실을 알고 「영의정이 호장의 아내 치상을 하니 호장의 아내가 영광이로다」 하고 그의 소탈한 인격에 감복하였다 한다.

14. 행주 대첩의 명장 권율

권율(權慄)은 1537년(중종 32)에 영의정을 지낸 권철(權轍)의 아들로 태어났다. 권철은 사관(史官)으로 있다가 그의 곧은 성격 때문에 좌천되자 벼슬을 버리고 강화의 선원면(仙源面)으로 내려와 살았는데, 그것은 그의 처가가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1537년(중종 32)에 다시 사관으로 복직되었는데, 이 해에 권율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권율은 벼슬을 그만 둔 후, 선원면에 만취당(晩翠堂)을 짓고 살면서 호를 만취당이라고 하였다.

권율은 어려서 부터 학업에 뛰어났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과거를 보려하지 않다가 46세 되던 1582년(선조 15)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 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전라도 순찰사(巡察使) 이광(李洸)과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이 4만여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곽영의 휘하에 들어가 중위장(中衛將)이 되고 북진하여 용인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리하여 광주로 되돌아가 남원에 주둔하면서 1,500여명의 의용군을 모집하여 다시 북상하였다.

권율은 이치령(梨峙嶺)에 진을 치고 금산을 노략한 적이 전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7월에 적의 대군이 금산을 떠나 이치령을 공격하여 왔다. 이 때 권율은 동복 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등과 적을 가로 막고 종일토록 격전을 벌렸는데, 황진이 적탄을 맞고 물러서자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일시 불리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권율이 칼을 빼내 들고 큰 소리로 호령하며 앞장서서 싸우니 아군의 사기가 충천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워 적을 물리쳤다. 적은 금산성으로 도망쳐 전라도 침공을 단념하게 되었다.

이 전공으로 권율은 나주 목사로 임명되었다가 곧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하였다. 순찰사가 된 권율은 황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방어사로 하여금 이치령을 지키게 하고 전주에 이르러 도내의 군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다시 북상하였다. 이 때 적군은 이미 평양을 함락시키고 주력 부대가 서울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서로(西路)를 끊어 버렸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모두 강화도로 들어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권율은 선조가 의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서울을 탈환할 목적으로 수

원의 독산성(禿山城)으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사자를 파견하여 상방검(尙方劍)을 내리면서 분부하기를 「모든 장수들 가운데 명령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써 처결하라」고 하였다. 이 때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은 권율의 군사가 수원 부근에 웅거함으로써 후방 연락이 위협 받는 것을 꺼려 수만의 군사를 3진으로 나누어 오산 등지에 진을 쳐 놓고 권율군을 유인하여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율은 굳게 성을 지키며 맞싸우지 않고 적의 약한 틈을 보아 날랜 군사로 하여금 불의에 습격하게 하니 적은 하는 수 없이 독산성 성중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끊고 성중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다. 그리하여 성중에는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권율이 물을 가장한 쌀로 말을 씻기는 기지를 써서 적을 물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내에 퍼져 있던 적군이 차례로 서울로 들어감으로써 의주에 이르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권율은 더욱 서울에 접근하여 적을 견제할 목적으로 1593년(선조 26) 2월에 행주산성을 쌓고 이 곳으로 진을 옮겼다. 행주 산성은 다른 산성과는 달리 야전용으로 급조한 산채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이 산성은 그리 높지는 않으나 동남 쪽으로는 한강이 굽이치는 절벽이고, 서북이 트여 파주·문산·벽제관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적은 병력으로 싸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 때 명나라의 구원병은 이미 평양을 수복하고 남하 중이었으므로 평안도와 함경도 방면의 적군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처음 적들은 권율이 행주산성에 웅거하여 서울을 엿보는 것을 두려워 하였으나, 그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알고 일제히 서울로 부터 공격하여 왔다. 적군이 쳐들어 온다는 보고를 받은 권율이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경솔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장대에 올라 바라보니 적 수만명이 물 밀 듯이 밀려와 행주 산성을 겹겹이 에워싸며 공격하여 오는 것이 보였다.

일본군이 접근하자 우리 군사들은 화차(火車)·석포(石砲)·진천뢰(震天雷)·총통(銃筒)·강궁(强弓)으로 불과 돌·화살을 날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하였다. 그러나, 적은 막대한 피해만 입고 패주하였다. 이것이 임진 왜란 3대첩(三大捷)의 하나인 행주 대첩(幸州大捷)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 군사들은 잿주머니를 던져서 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전법을 쓰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도 참가하여 부녀자들은 돌을 나르는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행주 대첩의 전공으로 권율은 도원수가 되었으며, 뒤에 한성 판윤·호조 판서 등을 역임한 후, 다시 도원수가 되어 정유 재란을 치르고 전후의 민심 수습에 진력하다가 1599년(선조 32)에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이해 7월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선조는 그에게 영의정을 추증하고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 부원군(永嘉府院君)을 추봉하였다.

15. 강직한 의병장 조헌

조헌(趙憲)은 1544년(중종 39)에 김포군 서감정리(西坎井里)에서 조응지(趙應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호는 중봉(重峰)이다. 어려서 김식(金湜)에게 글을 배우고 1567년(명종 2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지방관으로 돌아다니던 그가 내직으로 임명되었으나 불교 행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고 부여·안면도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이듬 해에 복직되었다. 1574년(선조 7)에 성절사(聖節使)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온 후 몇몇 관직을 역임하다가 통진현감(通津縣監)이 되었는 데, 죄인을 너무 엄중히 다스려 형벌을 남용한다는 탄핵을 받고 부평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에는 이율곡을 찾아가 학문을 배우며 자연을 즐기다가 복직이 되었으나 1584년(선조 17)에 이율곡이 세상을 떠나자 보은 현감(報恩縣監) 직을 사퇴하고 옥천(沃川)으로 내려가 이율곡을 모시는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1589년(선조 22)에 동인(東人)의 전횡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가 길주로 유배되고, 1591년(선조 24)에 일본에서 사신이 건너오자 상경하여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을 처단하도록 상소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주장하였다.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이 소식을 들은 조헌이 문하생과 함께 향병(鄕兵) 수백명을 모아 보은에서 차령(車領)을 넘어 우선 적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관군이 상주와 충주 탄금대(彈琴台)에서 패하자 조헌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격문을 돌리니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이 1,6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때 적병은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이를 점거하고 있었다. 조헌은 완산(完山)·홍주(洪州)·회덕(懷德) 등지를 순무한 다음 승장(僧將) 영규(靈圭) 군과 연합하여 청주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방어사 이옥(李沃)은 연기(燕岐) 동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7월 하순에 청주로 진출하고, 영규는 청주성에서 15리 되는 안심사(安心寺)에 집결하였다가 청주성 서문 밖으로 진출하여 조헌의 지휘를 받았다. 8월에 이르러 조헌군은 청주성 서문을 향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조헌은 선두에 서서 지휘하면서 군사 일부를 성 동·남·북 3면에 배치하여 함성을 울리면서 적을 견제하게 하고 주력을 서문 쪽에 투입하여 급히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병사들이 성벽을 넘어 설 순간에 사방이 어두어지며 소나기가 쏟아져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군사들이 잠시 물러나 있었는데, 이날 밤 적병은 시체를 불태우고 북문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청주성을 수복하자 조헌은 방어사 이옥에게 성 안에 있는 양곡을 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한 우마 수백두를 여러 동리에 나누어 주어 농사에 힘쓰면서 치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옥은 관군의 전공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성 안의 양곡을 모조리 불태우고 성 밖으로 나가버렸으므로 하는 수 없이 조헌은 군사를 일단 집으로 돌려 보내어 겨울 옷을 준비하여 오게 하였으니 이는 춥기 전에 의주(義州)로 가서 근왕할 결심이었기 때문이다.

조헌이 다시 군사를 정돈하여 가지고 북상하여 온양에 이르자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尹先覺)이 장차 자기의 비겁함이 왕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조헌의 북상을 저지 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윤선각은 조헌에게 글을 보내어 지금 금산에 있는 왜병의 형세가 커져 장차 전라·충청 지방을 침범할 기세가 보이니 함께 금산의 적을 무찌른 다음 근왕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조헌이 이에 동의하여 금산을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윤선각은 의병을 모두 관군에 편입시키고 조헌도 그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 읍에 공문을 보내어 의병에게 협력하는 것을 금하니 의병 속에 들었던 관군마저 빠져 나가고 다만 700의사 만이 그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고, 여기에 승장 영규의 수백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조헌은 전라도 순찰사인 권율에게 서신을 보내어 금산성 공격일을 8월 18일로 결정할 뜻을 밝히고 서로 협력할 것을 제의한 다음 금산으로 향하였는데, 기일을 연기하자고 제의한 권율의 글이 도착하기 전에 조헌은 이미 금산성 가까이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때 영규는 권율의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공격 기일을 늦추자 건의하였으나 조헌은 자기가 제의한 기일을 스스로 어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싸움에 승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7일에 금산성 밖 10리로 진출하여 진을 쳤다.

이 때 적은 조헌군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후속 부대가 없는 것을 탐지하고 이날 밤 야음을 이용하여 일제히 공격하여 왔다. 조헌은 부하들에게 「오늘은 다만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로다. 오로지 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지어다」라고 말하니 모든 장병들이 죽음으로 싸울 것을 맹세하고 몰려 오는 적을 세 번이나 물리쳤으나 중과부적으로 의병들이 전사하자 조헌은 끝까지 싸울 것을 호령하다 장렬하게 전사하니 영규 또 한 조헌을 따라 전사하였다. 조헌이 전사한 후 그의 문하생들의 의병의 뼈를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7백 의사총(七百義士塚)이라 하였다. 난이 끝난 후 조헌은 선무공신 1등에 봉해지고 영의정이 추증되었으며, 뒤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16. 의병장 홍계남

홍계남(洪季男)은 안성에서 홍자수(洪自修)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홍자수와 함께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큰 공을 세워 경기도 조방장(助防將)이 되었다. 타진에서 싸우다가 왜병이 전사한 아버지의 시체를 안성으로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된 홍계남은 곧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다. 이에 적은 전부터 여러 번 홍계남에게 패하여 그의 용맹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를 사로잡기 위하여 홍자수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주고 그 틈을 타서 적들이 4면에서 포위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홍계남은 왼쪽 어깨에 부친의 시체를 메고 바른 손에 칼을 빼어 들고는 적중에 뛰어 들어 종횡으로 혈로를 뚫으니 적이 그 용기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포위하여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홍계남이 한 쪽에 퇴로를 뚫고 자기 진으로 돌아와 부친의 시체를 막사에 안치한 다음 다시 되돌아 가서 추격하여 오던 적을 무찌르니 적이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다. 그 뒤 홍계남은 외 4촌 이덕남(李德男)과 함께 안성군 서운산(瑞雲山)에 산성을 구축하고 의병 3,000명을 거느리고 좌우 양날개에 진을 쳐 양성·안성·용인·진위·죽산 등지의 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출격하여 무찌르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치하하여 당상관으로 올리고 수원 판관(水原判官) 겸 양도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하였다. 이해 11월에 홍계남은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불행하게도 왜적의 흉변을 만나 적의 칼 아래 부형을 모두 잃으니 다 같이 무기를 베개로 삼고 쓸개를 핥으면서 군부의 복수를 기할 것인 즉 원근의 사민으로서 나와 같이 비통하는 사람은 천백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일대를 만들어 복수함으로써 부모의 깊은 원수를 갚고자 하노라. 부형·처자의 해골이 들에 흐터지고 원혼이 의지할 데 없으니 내 어찌 안연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여 의병을 모으고 더욱 왜적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다.

11월에 왜군은 용인·양지·죽산성을 서울·부산간의 유일한 연결 보급로로 확보하고 많은 병력으로 이 곳을 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소모사(召募使) 변이중(邊以中)이 충청·전라 지방에서 군사를 초집하여 천안·양성 일원에 주둔하면서 죽산성의 적을 치려고 훈련 중이었다. 그런데, 변이중은 죽산성에 웅거한 적이 이름난 맹장 후

꾸시마(福島正則)인데다가 그가 4,500명의 주력 부대를 죽산성에 배치하고 방비에 힘을 주고 있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우차계(牛車計)를 쓰기로 하였다. 즉, 우차로 돌진하여 성에 접근한 후, 우차에 숨겨 놓은 군사들을 풀어 일거에 적을 무찌르려는 계획이다. 우차는 적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부개를 씌웠으며, 우차는 큰 황소가 끌게 하였다.

죽산성 공격은 1593년(선조 26) 1월말에 시작되었다. 성 밖 5리 지점에 이르러 학익진을 치고 북을 치며 진격을 개시하였는데, 적이 크게 놀라 성첩 위에서 활과 조총을 일제히 쏘아대니 부산한 소가 광분하여 일제히 내달았다. 그러자 적은 성문을 열고 역습을 시도하였는데, 성난 황소가 얼어 붙은 땅위를 날으는 듯 적병을 향하여 돌진하니 우차에 치어 죽고 쇠뿔에 찔려 죽는 적이 무수하였다. 그리하여 적이 후퇴하자 우차 뒤를 따르던 궁사수(弓射手)가 성 위의 적과 궁사전을 벌렸는데, 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 때문에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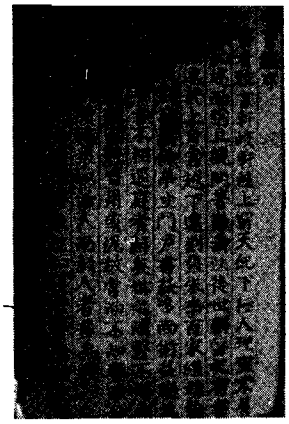
이 때 적의 제2진이 출격하여 횃불을 우차에 던지고 화전(火箭)으로 소를 쏘는 바람에 일부 우차가 불타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강풍이 불어 옆 우차까지 연소하게 되자 변이중이 급히 퇴군을 명령하였으므로 우차진이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러자 성중의 적이 일시에 출격하여 변이중군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서운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홍계남이 이 급보를 듣고 급히 출동하여 뒤따라 나오던 적의 측면을 공격하여 무찌름으로써 겨우 변이중군이 수습되기에 이르렀다.

이 해 4월에 적이 서울을 철수하여 서생포(西生浦)와 거제도 사이에 이르는 해안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이들이 경주 방면으로 출격하여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 때 충청도 조방장으로서 영천 군수(永川郡守)를 겸하고 있던 홍계남이 출동하여 경주 부근의 부락을 약탈하고 남녀 5,000여 명을 끌고 가는 적을 무찌르고 약탈 당한 재물과 끌려 가던 백성들을 모두 탈환하고 돌아왔는데,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그의 용맹은 남해 지방에 까지 떨쳤다.

홍계남은 안성군과 영천군에서 5년 동안이나 왜적을 무찌르는데 힘써 왔는데, 언제나 「이 적을 격멸하지 못하면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항상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정비하여 그가 나아가는 곳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1595년(선조 28)에 경상도 조방장으로 전임했고, 1596년(선조 29)에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1597년(선조 30)에 35세로 세상을 떠나니 군민(軍民)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이 슬퍼하였다고 한다.

17. 민족 의학을 수립한 허준



허준(許浚)은 1546년(명종 1)에 김포군 양촌면 공암리 능곡동(陵谷洞)에서 허론(許碖)의 둘 째 아들로 태어났다. 허론은 무관으로 용천 부사(龍川府使)를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허준은 서자로 태어 났기 때문에 양반 가문에서 천재적 자질을 갖추고 태어났으면서도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고 양반층이 천대하던 기술과에 응시할 수 밖에 없었다. 허준은 28세 되던 1574년(선조 7)에 의과(醫科)에 급제하여 의관으로서 내의원(內醫院)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엄격한 가정 교육과 「충효·청백」이라는 선대로 부터의 교훈으로 다져진 인격으로 말미암아 궁중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내의원에 근무하게 된 이듬 해 부터 내의(內醫)로서 왕을 진찰하는 영예를 얻었고, 1590년(선조 23)에는 위중한 왕자의 병을 낫게 하여 선조의 특명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허준은 어의(御醫)로서 끝까지 왕을 수행하여 호종 공신(扈從功臣) 3등에 봉해지고 뒤이어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지는 동시에 종 1품의 숭록 대부(崇祿大夫)에 올랐으나, 중인 출신에게 당상관의 위계를 줄 수 없다는 반대로 취소되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선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데 대한 어의로서의 책임과 모함 때문에 파직되어 유배되었다. 허준은 유배지에서 가난과 싸워가며 선왕 선조의 유명에 감격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는데 전념하였다. 이듬 해에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주위의 모함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1610년(광해군 2)에 15년에 걸친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정으로 「동의 보감」 25권을 완성하였다. 광해군에게 「동의 보감」을 바쳤을 때, 왕은 감탄하여 마지 않았으며, 그의 노고를 위로하여 포상대신 특별히 교지를 내려 양천 허씨(陽川許氏)에 한하여는 영구히 적서(嫡庶)의 차별을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로써 허준은 서족으로서의 오랜 불명예를 씻게되었다.

임진 왜란의 가혹한 전란을 치른 지 5년 만에 선조는 국가 사업의 하나로 동방 최고의 의학서 편찬을 기도하고 내의원의 내의들을 불러 그 뜻을 하명하였다. 그리하여

내의원에 편찬국을 두고 역사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 착수한지 1년을 지나 정유재란이 일어났으므로 편찬에 참여하였던 의원들이 흐터져 사업은 한 때 중단되었다. 난이 끝난 후 선조는 허준의 학구적 성실성과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여 허준 단독으로 편찬을 전담하게 하고 궁내에 있는 장서 500여 종의 의학서를 전부 제공하여 고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준은 이 중책을 필생의 사명과 대업으로 생각하고 고증적인 학구적 태도와 날카로운 관찰력, 해박한 고전에 대한 지식 거기에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편찬에 임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기본 학리에서 임상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와 체계로서 대륙 의학으로 부터 독자적인 체계를 세움으로써 민족의학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였다.

「동의 보감」은 그의 초인간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서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간결한 체계가 그 특징이다. 당시 「동의 보감」의 출현은 동방 의학계의 혁명이며, 또 이를 중흥한 대저술로서 우리 나라 의학의 우수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서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됨으로써 그 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동의 보감」의 간행을 계기로 그의 학문을 계승하여 실용성 있는 몇 권의 의학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명신(周命新)의 「의학 보감(醫學寶鑑)」과 강명길(康命吉)의 「제중 신편(濟衆新編)」. 황도연(黃道淵)의 「의종 손익(醫宗損益)」 등은 모두 「동의 보감」을 간략하게 편찬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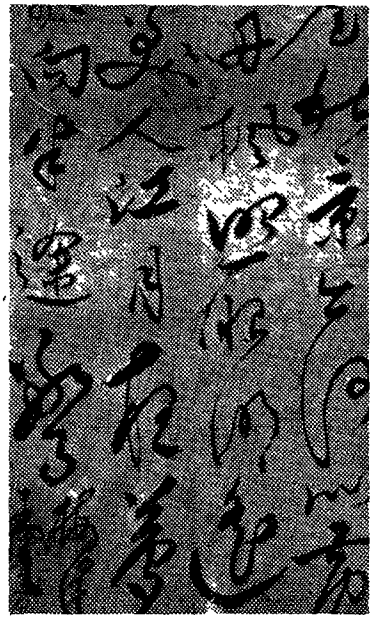
허준의 「동의 보감」은 실로 민족의 산문화재로서 국보적인 가치를 지닌 저술인 동시에 우리 나라는 물론 동양 의학사상에 빛나는 금자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허준을 가리켜 「동방 의성 양평군(東方醫聖陽平君)」으로 존칭되고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 중국이나 중공·일본 등지에서 계속 간행되어 한의학도 필독의 책으로 애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허준은 내의원에 근무할 때 의과(醫科)고시 교재로 채택되었던 의서에 틀린자가 많고 문맥에 조리가 없어 공부하는데 불편이 많았으므로 왕명을 받고 여러 고전을 참고하여 이를 엄정하게 교정하여 재편성하였다. 또 한 조선 초기에 널리 알려진 천연두(天然痘)에 관한 책을 증보 개정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1591년(선조 24)에는 출산에 관한 부인과서와 구급방을 한글판으로 저술 간행하여 의학 지식 보급에 진력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의학서가 너무나 번잡하여 쉽게 활용할 수 없었고 의료 기술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일부층의 전유물로 되고 의료 보급이 일반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유의하여 한글판 의학서를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허준이 동의 보감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70을 바라보는 고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두 편의 전염병에 관한 의서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동의 보감」을 완성한 지 5년 만인 1615년(광해군 7)에 「동의 보감」을 어루만지면서 오욕과 영광에 엇갈렸던 일생의 막을 닫았다. 허준은 평생을 통하여 거의 사생활을 돌 볼 여유도 없이 오로지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바친 일생이었다.

18. 동방의 서성 한호



한호(韓濩)는 1543년(중종 38)에 개성에서 정랑(正郎) 벼슬을 지낸 한관(韓寬)의 손자로 태어나고 호를 석봉(石峰)이라 하였다. 한석봉은 개성 변두리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재주가 비범하였으나 집이 가난하여 책과 지필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꼭 성공시키려고 정성을 쏟았다.

그의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들의 공부를 위하여 학용품을 사서 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엄한 훈계로 달래고 또 격려하였다. 석봉은 집에서 30리쯤 떨어진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명절 때나 옷을 갈아 입을 때 이외에는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석봉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불을 끄고 캄캄한 방에서 떡을 썰면서 석봉에게 글씨 쓰기를 명하였다.

이윽고 어머니는 등잔에 불을 켰다. 석봉은 어머니의 솜씨에 감탄하였다. 어머니는 석봉이 쓴 글씨를 보고 「너도 어두운 데서 이만큼 썼으니 대견하다마는 아직도 내 솜씨에 따르려면 멀었다. 무슨 일이던지 열심히 노력하고 오래 되풀이하여 익히면 안되는 것이 없다. 너도 눈을 감고서 잔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힘써 공부하여라」라고 하였다. 석봉은 어머니의 교훈에 감격하여 기어이 성공하고 말겠다고 마음 속에 다짐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 만이 자기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다짐하였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 선생은 석봉에게 「너는 장차 명필이 될터이니 글씨 공부에 더 힘을 쓰거라」하고 찬양하면서 그를 격려하였다. 그리하여 석봉은 글씨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지필묵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석봉은 감나무와 떡갈나무의 넓은 잎을 따서 글씨를 쓰곤 하였다. 그러나, 나무 잎은 여름

과 가을철 밖에 이용할 수 없었고 또 한 잔 글씨쓰는 외에는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다음에는 큼직한 반석으로 된 돌다리 표면을 갈아서 거기에 글씨를 썼다. 「이 돌 종이가 다 닳도록 쓰면 내 글씨도 어머니 떡 써는 칼재주 만큼 늘겠지」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돌다리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독의 표면을 이용하였다.

석봉은 글씨를 신희남(愼喜男)에게 배우고 서법은 왕희지(王羲之)와 안진경(顔眞卿)을 본받아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석봉은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명필의 좋은 바탕을 본받아서 통달하고 다시 그 서체와 서풍을 초월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독창적인 한국적 서풍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중국 모방의 오랜 전통을 깨트렸다.

석봉은 1567년(명종 22)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1599년(선조 32)에야 천거로 벼슬에 올라 가평 군수(加平郡守) 존숭 도감(尊崇都監) 서자관(書字官) 등을 역임하였으나 벼슬보다도 명필로 이름을 떨쳤으니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씨를 보고 「석봉의 글씨는 마땅히 왕희지와 안진경에 견줄 만하다」고 중국의 서성(書聖)들과 나란히 평하였다. 석봉의 글씨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는 임진왜란 때 구원군을 거느리고 온 이여송(李如松)에 의하여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이여송은 그의 글씨를 보물로 가져갔고, 유구국의 사신도 귀중한 선물로 얻어갔다. 석봉의 글씨가 널리 명나라에 까지 알려지자 그는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자주 명나라에 가게 되었고 또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을 때 접빈관(接賓官)의 서장관으로 활약하였다.

그가 명나라의 서울 연경(燕京)에 갔을 때 이러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당시 연경에는 서화 수집으로 이름난 부호가 있었는데, 하루는 서화가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저기 걸린 족자의 글씨와 겨누어서 똑같이 쓴 사람에게는 후한 예물을 드리겠소」하였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때 말석에 앉아 있던 석봉이 나서서 붓을 잡았다. 좌중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므로 모두 비웃는 눈길이 쏠릴 뿐이었다. 석봉이 붓에 먹을 담뿍 찍어서 금가루를 뿌려 만든 족자에 글씨를 쓰려고 할 때에 옆에서 킬킬거리고 웃는 소리가 났다. 석봉도 약간 흥분하여 주저하는 사이에 먹물이 종이 여기저기에 떨어졌다. 주인이 노기를 띠고 그를 흘겨보았다. 그러나, 석봉은 「여러분, 이 먹물을 튀긴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미리 글씨 자리를 잡아 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붓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붓 끝은 여기저기 튀었던 먹물 자국을 교묘하게 흡수하면서 글씨가 이어져 나갔다. 종이 위에 떨어졌던 먹물은 하나도 없이 묘한 글씨의 획과 점으로 화해 버렸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좌중에서 탄성이 올랐다. 처음에 노했던 주인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석봉의 손을 잡고 새삼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석봉이 「소생은 이 번에 사신과 함께

귀국에 온 조선의 한석봉이라는 사람입니다」하니 주인이 「한석봉 소문에 듣던 한공이 바로 당신이오 아까는 실례가 많았읍니다. 용서해 주시오」하고 공손히 사과의 술잔을 들어 권하였다. 이 이야기가 연경에 퍼지자 그의 글씨를 청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선조는 석봉의 글씨를 몹씨 아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의 글씨를 서재에 걸어 두고 조석으로 감상하였다. 석봉이 63세로 병석에 눕자 선조는 약을 내려 위문하였으나 1605년(선조 38)에 세상을 따나자 후한 부의를 내렸다. 석봉의 필적으로 여러 비문과 「석봉천자문(石峰千字文)」 등 모간(模刊)된 것이 남아 있다.

(術士)들의 말을 듣고 도읍을 교하(交河)로 옮기려고 하였을 때에도 이수광의 상소하여 술사들의 요사스런 주장을 막았다. 이 때 술사들이 서울은 국운이 쇠퇴하였으니 길지(吉地)인 교하로 천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한 바 있는데, 광해군이 그 말을 좇아 도읍을 옮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광해군이 대북(大北) 일당의 농간으로 영창 대군(永昌大君)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영창 대군 또 한 강화로 유배하였으며 선왕의 구신들을 방축하는 옥사가 벌어지자 이수광은 사직 하고 두문 불출하였다. 1616년(광해군 8)에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임명되어 부임하게 되자 옥사의 와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선정을 베푸는 데에만 전념하다가 얼마 후 사직하고 다시는 관계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1623년(광해군 15)에 인조 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수광은 도승지로 기용되었다. 1624(인조 2)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모시고 공주로 난을 피하였으며 돌아와서 대사헌·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는데, 1627년(인조 5)에 정묘 호란이 일어나자 다시 인조를 모시고 강화도로 난을 피하였다. 환도 후 이조 판서가 되었다.

이수광은 젊어서 부터 시와 문장에 몰두하여 그의 시문은 격조가 높은 것으로 정평을 받았다. 그러나, 만년에 접어 들면서는 「일찌기 문자의 그릇된 바 되어 평생을 헛되이 보내다가 늦게서야 성현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가 학문을 받아 들이는 태도는 폭이 넓고 비판을 가하는 면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의 저서로는 「지봉집(芝峰集)」과 「지봉 유설(芝峰類說)」이 있다. 「지봉집」 가운데에서는 그가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안남국 사신을 통하여 알게 된 그 나라의 풍속·제도·왕실의 연혁·기후·국토의 넓이 등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유구국 사신을 통하여 알게 된 그 나라의 넓이·풍토·기후·국왕의 성씨·유·불교·과거제 등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섬라국의 위치·거리·산업·기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 방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봉 유설」이다. 「지봉 유설」은 일시에 집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두고 기록한 백과 전서적인 책이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적 넓이를 알 수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괴기한 것은 수록하지 아니하고 고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봉 유설」의 특이한 내용으로는 안남·유구·섬라·석란(씨일론) 등 동양 각국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유럽의 영국·프랑스에 관한 것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 관하여는 위치·기상·생활 양식·군함의 구조·무기 등이고, 프랑스에 관하여는 무기인 불랑기(佛狼機, 대포)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더우기 명나라 말기에 중국으로 건너 온 선교사 마테오·릿치의 「천주

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하면서 천주교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천주교의 교리와 교황에 관한 것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천주교가 건너 오는 실마리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이수광은 학문의 바탕을 성리학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의 학문은 실학과 연결되어 실학 발전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 이수광은 한 평생 향기를 내지 않고 촛불도 켜지 않았으며 연회를 베푼 일도 없었다. 의복은 항시 베옷 만 입고 한 벌의 갓옷을 15년 동안이나 입었다고 하니 그의 검소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이수광은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환도한 후,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이듬 해인 1628년(인조 6) 12월에 세상을 떠나니 뒤에 영의정이 추증되고, 시호를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20. 척화론의 기수 오달제

오달제(吳達濟)는 1609년(광해군 원년)에 용인에서 오윤해(吳允諧)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달제는 1634년(인조 12)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1636년(인조 14)에는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이 때 후금의 사자가 와서 군신(君臣)의 의로 대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조야가 분격하여 척화 배금론(斥和排金論)이 비등하게 되었는데, 오달제는 장령(掌令) 홍익한(洪翼漢)·교리(校理) 윤집(尹集)과 더불어 척화론의 선봉이 되었다.

만주에서 명나라 세력이 쇠퇴하자 여진족이 1616년(광해군 8)에 후금국을 세우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요동 지방을 정복하였다. 이 때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그곳을 탈출하여 평안도 철산의 단도(椵島)에 진을 치고 후금을 후방에서 견제하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후금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동시에 요동이 함락된 후에는 바다를 통하여 명나라와 통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후금에서는 조선이 국내에 모문룡을 머물게 하면서 은연이 원조하고 있고 후금에 대하여는 사절의 내왕조차 없자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에 침입하니 이것이 1627년(인조 5)의 정묘 호란(丁卯胡亂)이다.

정묘 호란이 있은 후, 후금에서는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조선에 대하여는 군량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압록강 중의 중강(中江)과 회령(會寧)에서 저자를 열어 후금과 본격적으로 교역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후금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약조를 어기면서 식량과 병선 등 부당한 요구를 강압하여 왔다. 그 뒤 후금이 만리 장성을 넘어 명나라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물자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물자의 반감을 교섭하려는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심양(瀋陽)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으며, 두 번째 사신도 압록강을 넘어섰다가 그대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후금의 무례한 태도에 분격하여 척화 배금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1636년(인조 14)에 후금에서는 용골대(龍骨大)와 마부태(馬夫太)를 사신으로 보내 후금에게 신하의 예로써 대하라고 요구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조야의 분격이 절정에 달해 홍익한·오달제·윤집과 성균관 유생들이 사신을 목벨 것과 국서를 불태우도록 주장하였고, 홍문관·사간원도 척화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인조가 사신

의 접견을 거절하고 국서도 받지 아니하자 사태가 험악해짐을 본 사신들이 민가의 마필을 빼앗아 타고 도망하였다.

인조와 조정 신하들이 척화론으로 기울어지자 최명길(崔鳴吉)이 「국가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으니 속히 화평할 사신을 파견하여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화평론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오달제와 윤집 등이 일어나 최명길의 목을 베도록 청하였다. 그래도 최명길은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척화하자는 말은 옳은 듯하나 나라가 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화의를 하자는 말은 그른 듯 하나 종사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1636년(인조 14)에 후금의 태종은 황제의 칭호를 받고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고 하였다. 이 때 조선의 사신들이 그의 즉위식에 참여하였으나 구타를 당하면서도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돌려 보내면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서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보내 왔다. 이 해 11월에 사신들이 심양에 이르자 이번에는 「왕자·대신 및 척화론의 주창자를 들여보내되 만일 듣지 않을 때에는 군사를 발하겠다」고 거듭 경고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그러자 청 태종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침입하여 왔다.

청군이 압록강을 넘었다는 보고에 접하자 조정에서는 세자빈·원손(元孫) 이하 봉림 대군(鳳林大君)·인평 대군(麟坪大君) 등을 강화도로 피병하게 하고, 인조도 강화도로 떠나려고 하였으나 이미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버렸으므로 하는 수 없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인조가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자 서울에 입성한 청군이 남한 산성을 겹겹이 포위하였고, 각도의 감사·병사가 거느리고 올라오던 구원병도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 때 남한 산성 안에서는 강화론과 주전론이 맞서 논쟁을 거듭하였는데,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결국 강화론으로 기울어져 적진에 강화를 청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때 청 태종이 「인조가 친히 성을 나와 군문에 항복하고, 맹약을 깨뜨린 주모자 2·3명을 묶어 보내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주저하던 중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인조가 세자와 더불어 삼전도(三田渡)의 적진으로 나아가 군신의 예를 다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립시켰다.

그리하여 청 태종은 강화도에서 잡은 포로를 송환한 다음 그들 진중에 억류하였던 세자·세자빈과 봉림 대군을 인질로 하고 척화론의 주모자 오달제와 윤집을 잡아 심양으로 돌아갔다. 오달제와 윤집이 처음 적진에 잡혀 갔을 때, 용골대의 문초를 받았으나 굽히지 아니하자 심양으로 끌고 갔는데, 심양에서도 갖은 협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굴하지 아니하자 사형에 처해졌다. 홍익한도 뒤이어 잡혀 가 또 한 사형에 처해졌

으니 세간에서는 이들을 3학사(三學士)라고 부른다.

오달제에게는 뒤에 영의정이 추증되고 시호를 충렬(忠烈)이라 하였으며 홍익한·윤집과 더불어 남한 산성 안의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고, 그 외 평택의 포의사(褒義祠)와 홍산(鴻山)과 영천(榮川)의 서원에 제향되었다.

21. 청남의 영수 허목



허목(許穆)은 1595년(선조 28)에 연천에서 현감 허교(許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호를 미수(眉叟)라고 하였으므로 이름보다도 미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가 미수라고 하는 호를 가지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눈썹이 길어 눈을 가릴 지경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허목은 아홉 살 되던 해 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백 번을 읽어야 겨우 깨우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산 속에 들어가 수 10년 동안 공부하였고 50이 넘도록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특히 예학(禮學)에 있어서 일가를 이루었다.

허목은 62세 되던 1657년(효종 8)에 비로소 천거로 벼슬길에 올라 사헌부의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간 지 3년 되던 해에 있었던 예송(禮訟) 싸움이다. 현종 즉위 초 부터 크게 벌어진 서인과 남인과의 당쟁은 복상(服喪)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즉, 소현 세자(昭顯世子)가 돌아간 후 인조 다음에 효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나자 효종의 계모인 대왕 대비 조씨가 어떠한 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예송(禮訟)이 시작되었다. 이 때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효종은 장자가 아니고 지차이므로 대왕 대비의 복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하여 1년복을 주장하여 조정의 의견이 그리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남인의 영수인 윤휴(尹鑴)가 3년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장자가 죽은 뒤에는 다음 아들로 적장자를 삼아야 하므로 3년복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인의 1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엇갈려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서인의 의견이 채택되어 1년복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듬해에 남인인 허목이 상소하여 1년 복은 잘못된 것이니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새삼스럽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송시열이 효종의 각별한 아낌을 받았으면서도 불경한 말을 써서 효종을 모독하고 있다고 송시열을 공격하였다. 윤휴의 주장이 예론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주장인데 반해 허목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허목의 나이는

61세였는데, 이 때부터 그는 강경하게 송시열과 대결하면서 예론의 논쟁을 통하여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세력을 몰락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논쟁이 거듭되었으나 현종은 당초에 작정한 1년복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때 남인의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효종의 상사에 대비의 복제를 3년으로 하자 아니하고 1년으로 정한 것은 효종의 왕통 계승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국가의 적통을 10년 간이나 지켜 온 효종이 종통이거늘 왕노릇도 못하고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난 소현 세자에게로 종통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송시열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무리만 등용하는 등 나라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천지간에 살려 둘 곳이 없읍니다」고 송시열을 맹렬히 공격함으로써 예송 싸움은 드디어 정권 쟁탈의 투쟁으로 변하게 되었다.

윤선도의 상소가 나오자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 그의 상소가 예를 논하는 것에 가탁하여 난을 일으키고 붕당을 갈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엄벌을 주장하게 되었고, 당파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을 짐작한 현종이 윤선도를 유배시켰다. 그리하여 남인들이 일대 타격을 입고 정계에서 물려났는데, 허목은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좌천되었다. 허목은 삼척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사직하고 고향 연천으로 돌아갔다.

1674년(현종 15)에 두 번 째 예송이 일어났다. 그것은 효종비인 인선 대비(仁宣大妃)가 세상을 떠났을 때, 대왕 대비의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시 예송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서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1년복을 주장한 서인들은 9개월 복을 주장하였는데, 3년복을 주장한 남인들은 1년 복을 주장하게 되었다. 현종이 중신들에게 의론하도록 하였으나 서인들이 9개월 설을 주장하자 현종이 「돌아간 왕과 왕비를 깎아 내리는 것은 통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내려 1년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조정에서 서인들을 몰아 내게 되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들이 조정에서 세력을 얻게 되자 연천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던 허목이 대사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대사헌이 된 것은 숙종의 즉위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때 조정에서는 예송 싸움의 뒷처리와 특히 송시열에 대한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다시 소란하여졌다. 1675년(숙종 1)에 송시열이 강계(江界)로 유배된 뒤 허목은 「송시열을 종묘에 고하여 그 죄를 가중하라」고 주장하였고,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許積)은 「송시열이 비록 예론을 그릇되게 한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사형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송시열에게 가혹한 주장을 펴는 허목파를 「청남(淸南)」이라 부르고, 온건한 주장을 편 허적파를 「탁남(濁南)」이라 부르니 두 파의 싸움은 나날이 심하여졌다.

허목은 자기의 주장이 허적에게 용납되지 아니하자 벼슬을 버리고 연천으로 돌아갔다. 1679년(숙종 5)에 왕명을 받고 상경하여 탁남파의 허적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어 연천에서 대죄하는 몸이 되었다. 그 후 허목은 다시는 정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682년(숙종 8)에 87세로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고, 마전(麻田)의 미강서원(湄江書院)과 나주 미산서원(眉山書院)·창령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 제향되었다.

22. 실학의 대성자 정약용

정약용(丁若鏞)은 1762년(영조 38)에 광주 마현(馬峴)에서 정재원(丁載遠)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를 다산(茶山) 또는 여유당(與猶堂)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려서 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일곱 살 때에 시를 읊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 그 때 마침 천연두를 앓았으나 한 점의 흉터도 없이 말끔히 나았고 다만 눈썹 위에 약간의 흔적이 남아 세 눈썹이 되었으므로 삼미(三眉)라고 불렀다 한다.

그의 가문은 그가 일찌기 「우리 집안에서 해보지 못한 벼슬은 정승·이조 판서·대제학 단지 세 가지 뿐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명문 집안이었다. 그러므로 정조도 옥당(玉堂, 홍문관)은 그야말로 정씨 집안의 세전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외증조부 윤두서(尹斗緖)는 윤선도(尹善道)의 증손으로 화가였는데, 그에게는 경제와 실용에 관한 장서가 많았다고 한다. 정약용은 어려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서적들을 탐독하였다고 하니 그의 학문적인 기초는 이들서적을 통하여 얻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숙종 때 노론·소론·남인이 3파전을 벌이던 당쟁이 장헌 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를 몰아 죽이는데 가담한 노론 중심의 벽파(僻派)와 장헌 세자의 아들이 동궁(후의 정조)으로 있을 때, 그를 동정한 남인 중심의 시파(時派)로 갈려 적대시하고 서로 싸웠다. 그리하여 남인인 정씨 가문은 중앙 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시골에 묻혀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는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남인이 다시 등용될 때 그의 아버지도 복직되어 아버지와 함께 상경하였다. 그가 16세 되던 해에 이가환(李家煥)과 매부 이승훈(李承薰)을 따라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보고 실학이라는 학문에 힘쓰게 되었다. 한 편, 그는 서학(西學)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니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사상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합쳐 일컫던 말이다.

정약용은 22세 때 생원에 합격하고 23세때 성균관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정조에게 중용(中庸)을 강론하게 됨으로써 정조의 특별한 비호를 받게 되었다. 그가 28세 되던 1789년(정조 13)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천주교인이라는 지탄을 받아 해미(海美)로 귀양갔다. 정조는 그에 대한 탄핵을 누그러뜨릴 수 없어 부득이 유배를 하였으나 불과 10일 만에 귀양을 풀고 복직시켰다. 그가 31세 되던 해에 축조를 추진 중이던 수원성에 대한 성제(城制)를 작성하여 올렸고, 그 밖에 「기중 가설「起重

加說)」을 지어 올림으로써 활차(滑車)와 녹로(轆轤)를 만들어 조고만 힘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고금 도서 집성(古今圖書集成)」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서양의 축성 기술을 참작한 것이지만 수원성 공사의 공정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약용은 1794년(정조 18)에 경기도 암행 어사가 되어 연천 방면을 암행하고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협잡을 보고 하였는데, 이 일로 서용보는 평생 그를 질시하고 음해하게 되었다. 이 때 청년 어사인 정약용은 농촌의 궁핍한 정경을 목도하였다. 이것이 뒷날 그의 학문의 현실적인 기틀이 되었다. 이듬 해에 주문모 신부(周文謨神父)가 체포되자 이 사건에 관련되어 충청도의 금정 찰방(金井察訪)으로 좌천되었다가 돌아와 1796년(정조 20) 부터 규장각(奎章閣)의 여러 편찬사업에 종사하였다. 이 무렵 그칠 줄 모르는 반대파의 공격 때문에 정조도 마침내 그를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내어 보내 공격의 화살을 피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그의 서학 문제를 들고 나오자 정약용은 37세 되던 1798년(정조 22)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20년이 못되는 관계 생활에서 아주 떠나고 말았다.

정약용은 고향에서 형제와 함께 경전을 강론하다가 1800년(순조 원년)에 시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 천주교도들이 잡혀 투옥될 때 그도 투옥되었다가 장기(長鬐)로 귀양 가게 되었다. 이 때 세 째 형 정약종(丁若鍾)은 옥중에서 죽고, 둘 째 형 정약전(丁若銓)은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천주교의 대탄압인 신유 교난(辛酉敎難)이 진행되어 많은 천주교도들이 참화를 입게 되자 정약용은 장기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과거 황해도에서 베푼 선정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전라도 강진(康津)으로 옮겨 유배되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두문 불출하면서 조선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분석과 비판을 가하는 저술에 착수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실학 최대의 학자로 불리우게 된다. 그는 이 곳에서 「경세 유표(經世遺表)」와 「목민 심서(牧民心書)」를 저술하였다. 「경세 유표」는 국가 제도의 간소화를 토대로 토지·조세의 관리로 부터 산업 기술 무역 정책에 까지 논급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경세 유표」 가운데서 더욱 시급한 농민 경제를 바로 잡음으로써 도탄에 빠진 농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목민 심서」의 저술에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경세 유표」와 「목민 심서」는 다 같이 정치의 개혁론으로서 주로 정치 제도의 간소화와 경제 기구·경제 정책의 시정을 주장한 것이다. 「경세 유표」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중앙 관서의 국가 재정 관리를 제도와 정책면에서 개혁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목민 심서」는 중앙의 권력 기구에 관련시키면서 수령과 농민간의 문제를 다룸으

로써 농민 경제와 지방 행정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진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저술과 시짓기에 전념하다가 1836년(헌종 2)에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10년에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이 추증되고 시호를 문도(文度)라 하였다.

23. 국어학의 개척자 유희

유희(柳僖)는 1773년(영조 49)에 용인에서 현감 유한규(柳漢奎)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지 열 달 남짓하여 벌써 어머니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총명하고 해박한 재질을 타고났다. 돌을 전후하여 유희는 심한 천연두를 앓고 소생은 하였으나 얼굴이 얽고 몸이 허약해져 발을 떼어 놓던 그가 다시 기어다니게 되고 말귀는 알아들었으나 말 배우기가 아주 늦어졌다.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초조와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유희에게 젖을 먹이면서 보던 책 가운데의 한일 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한일 자다」 하고 혼잣말 같이 하고 낮잠을 자는 체하였더니 유희는 건너 방으로 기어 가서 책상에 놓인 책가운데의 한 권을 입에 물고 와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이거 이거」하고 한일 자를 모두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다.

유희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9세에 이르러서는 이미 「서전(書傳)」을 공부할 정도에 이르렀다. 유희는 이 해 아버지를 여의고 줄곧 어머니 사주당의 훈도를 받게 되었으니 어머니는 그의 엄한 스승이자 인자한 어머니로서 그가 후일에 뛰어난 업적을 낳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희는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학계는 크게 성리학을 연구하는 경향과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을 연구하는 경향의 두 줄기가 있었는데, 유희는 고증학에 더 관심을 보였으니 그의 학문적 방향은 이미 이 때 부터 잡혔던 것이다.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어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유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충청도 단양으로 이사를 하였다. 유희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훈계하기를 「너의 천성은 속류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 만일 과거에 든다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보지 말고 오직 산천에 파묻혀 천진한 성품을 지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어머니의 훈계를 지켜 과거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유희가 49세 되던 1821년(순조 21)에 어머니 사주당을 여의였다. 어머니를 잃은 그는 애통한 나머지 음식을 전폐하고 몸져 드러누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동안 닦았던 학문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 실의와 번민 속에 수척해진 몸을 가누고 책상 앞에 앉은 그를 보다 못해 그의 작은 누이가 과거볼 것을 애소하였다. 누이의 권유에 못이긴 유희는 1825년(순조 25)에 53세의 나

이로 생원에 합격하였으나 끝내 문과에는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유희는 평생을 통하여 저술한 업적을 「문통(文通)」이라는 총서에 수록하였다. 이 총서는 63종의 서책으로 꾸며졌는데, 그 중에서 「언문지(諺文志)」 등 몇 가지가 간행되고 있다. 「언문지」는 우리 말에 대한 연구 방법을 새롭게 하여 우리말의 짜임새를 검토한 것이다. 즉, 역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한자 음을 연구하는 일로 시종하여 우리 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유희가 52세 되던 1824(순조 24)에 「언문지」를 엮어 내어 전혀 앞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를 파헤치고 있다.

유희는 「언문지」를 엮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스승 정동유(鄭東愈)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오묘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지마는 그렇게 한다면 그릇되게 해석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글로 뜻을 적어 놓는다면 하나라로 잘못볼 일이 없으니 너는 우리 글이 부녀자나 배우는 천한 글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에 나는 그 분과 더불어 우리 글에 대하여 토론하기 몇 달 만에 마침내 이 책을 지어 「언문지」라 이름하였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상자 속에 던져버리고 15·6년이 지나는 동안 잃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사성 통해(四聲通解)」란 책을 얻어 보고나서 다시 옛날 기록을 엮어 내고 간간이 새로운 견해도 넣어 다시 한 책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문통」에는 「언문지」 외에도 수학·천문·지리·복서(卜筮)·종수(種樹·농정·풍수·충어(蟲魚)·조류 등에서 경학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 마음은 앞서도 그의 몸은 말을 듣질 않았다. 이미 허약해진 그는 몽롱해가는 눈과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몇 차례나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끝내 「문통」은 그의 손길을 모두 받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에 남겨지고 말았다.

「문통」 속에 「물명고(物名攷)」가 들어 있는데, 「물명고」는 곤충·동물·물고기·식물·나무·흙·돌·광물 등에 대한 물명을 우리 말로 주석을 붙인 중요한 문헌으로 되어 있다. 유희는 어머니 사주당의 가르침대로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저술에만 전념하다가 1837년(헌종 3)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학 다능했던 그는 경학·자연 과학 등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성으로 우리 글의 참된 모습을 파헤쳐 우리 국어학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다.

24. 위정 척사론의 이항로

이항로(李恒老)는 1792년(정조 16)에 양근(楊根) 벽계리(蘗溪里)에서 이회장(李晦章)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를 화서(華西)라고 하였는데, 화서는 그의 고향 가까이의 청화산(靑華山)에서 딴 것이다.

그는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 때에는 「십구 사략(十九史略)」을 배웠다. 이회장은 아들이 천부의 재질을 타고 났음을 알고 수시로 당대의 이름 있는 학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경사(經史)를 토론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럴 때에는 어린 아들을 그틈에 끼어 들게 하였는데, 하루는 남기제(南紀濟)라는 분이 말하기를 「내가 근일에 한 가지 새로운 발견을 하였는데. 천지 사이에 있은 천만 가지의 일이 오직 1개의 기(氣)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 이항로가 나서면서 말하기를 「소자의 소견으로는 천하 사이의 천만 가지 일이 오직 1개의 이(理)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겨우 9세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어른들의 강론을 알아 듣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

12세 때에는 「서경(書經)」을 익히고 17세 때 부친의 엄명에 따라 서울서 실시하는 초시인 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 때 부터 그의 문장의 조숙하고 훌륭하여 그 명성이 장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어느 권세 있는 사람이 「만일 우리 아들과 친근히 지내주면 급제의 길이 빠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항로는 크게 분개하여 그 날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과거를 포기하고 돌아온 이항로는 뜻한 바 있어 저명한 학자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 찾은 학자는 서울의 임로(任魯)였고, 다음이 지평(砥平)의 이우신이었다.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는 그가 지금까지 닦은 학문적인 기반을 더욱 굳이고 넓이게 되었다. 25·26세 때에 연이어 양친을 여인 다음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이항로는 산림에 묻힌 처사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한 편,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항로에게는 그의 학문과 인격을 숭배하는 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서사(書舍)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서사에서 번잡을 느낄 때에는 쌍계사(雙溪寺)·고달사(高達寺) 등 깊은 산속의 절을 옮겨 다니면서 독서를 계속하였다. 특히 그는 4서와 3경을 숙독하였는데, 읽기를 수없이 되풀이하여 번수를 기억하

지 못할 정도였고, 어디를 오고 가거나 항상 암송하였는데, 중용(中庸)은 외기를 만번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일찌기 말하기를 「읽 때마다 새로 얻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만 번쯤 더 읽다면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항로는 고질에 가까울 정도로 산수를 사랑하여 몇 사람의 친구나 제자들과 짝을 짓거나 혹은 호젓하게 전국의 명승 고적을 찾아서 시를 읊고 담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항로는 산 속에 묻혀 지내는 일개 야인에 불과하였지만 당시의 국정이나 인생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항로는 어려서 부터 주자학을 연구하여 드디어는 주자를 독신한 나머지 그의 학설을 금과 옥조로 알고 신봉하였으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단시하여 가차 없는 공격을 가하였다.

이항로가 49세 되던 해에 천거로 참봉(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도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르도록 종용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사양하고 더욱 산 속에 묻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이와 같이 정계와는 멀리서 떨어져 살았으나 그의 성망은 날로 더해갔다. 그리하여 1864년(고종 원년)에는 계속 여러 벼슬이 내려지고 다시 지평(持平)·장령(掌令)등 화려한 벼슬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0세 고령이었으므로 이러한 벼슬을 모두 사양하고 말았다. 그러자 1866년(고종 3)에 프랑스 함대가 침입하여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 양요(丙寅洋擾)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대 사태를 눈 앞에 두고 당시 조정에서는 혹은 화친을 주장하고 혹은 파천(播遷)을 주장하여 의론이 분분하였는데, 이 때 「노성한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김병학(金炳學)의 제청에 따라 이항로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불러 그의 대책을 묻게 되었다. 이항로는 자진 출두하여 궐문 밖에서 상소를 올리고 먼저 벼슬의 사퇴를 표명한 다음, 화친론을 배격하고 도성을 버릴 수 없다는 강력한 전수론(戰守論)을 폈다. 대원군이 그의 주장을 채택하여 싸워서 지키기로 국론을 결정하였다. 그 후 이항로는 공조 참판으로 임명되었다. 일단 관계에 들어선 이상 국정에 대하여 눈감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이항로는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공사와 재정 정책에 대한 실책을 신날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강화도를 점령하였던 프랑스 군이 그의 수제자인 양헌수(梁憲洙)에 의하여 격퇴되자 한 장의 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868년(고종 5)에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항로는 존왕 양이(尊王攘夷)의 대의를 평생토록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하에서는 위정 척사(衛正斥邪)와 창의 호국(倡義護國)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니 최익현(崔益鉉)·유인석(柳麟錫) 등이 대표적이다.

25. 방랑 시인 김립

김립(金笠)은 1807년(순조 7)에 양평에서 김안근(金安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김병연(金炳淵)인데, 본명보다도 김립(김삿갓)이라는 속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나이 스므 살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하였는데, 이 때의 시제목이 홍경래(洪景來)의 난 때, 순절한 가산 군수(嘉山郡守) 정시(鄭蓍)의 충절을 논하고 홍경래군에 항복한 선천부사(宣川府使) 김익순(金益淳)의 죄를 개탄하라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김익순이 그의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칼날 같은 붓끝을 휘둘러 김익순을 규탄함으로써 장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어머니는 얄궂은 운명에 암담한 생각에 잠기면서 그에게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1811년(순조 11)에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홍경래는 조정에서 평안도 사람에 대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에 불평을 품고 있던 차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아래 관리들의 노략질이 심하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기 어렵게 되자 이 틈을 타서 김사용(金士用)·우군칙(禹君則)·이희저(李禧著)·김창시(金昌始)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가산·선천 등 청천강 이북의 8읍을 석권하고 박천 송림리(松林里)에서 관군과 싸우다가 패하자 이듬 해에 정주성(定州城)으로 집결하여 항전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난이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김익순은 선천 부사로 부임한 지 석 달 밖에 안되었다. 어느 날 그는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반란군의 기습을 받아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반란군에게 꽁꽁 결박을 당한 뒤였다. 그리하여 김익순은 만대에 씻지 못할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듬 해 난이 평정된 후 사형에 처해졌으며 그 일가는 멸문(滅門)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 때 김병연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다.

그 후 김병연의 아버지 김안근이 홧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종의 고향인 황해도 곡산(谷山)에 숨어서 살게 되었다. 김병연은 어릴 때 부터 시짓는 재주가 뛰어나 홀어머니의 자랑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내력을 숨기고 오로지 김씨 가문의 중흥을 그에게 걸고 살아 왔다. 그러나, 김씨 일가의 비극은 이것

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필이면 그가 응시한 과거의 시 제목이 할아버지 김익순을 규탄하는 것이었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장난이었다.

청춘의 뜻은 산산이 무너지고 울분과 체념 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이 가혹한 현실로 부터의 도피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립(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을 더듬게 되었다.

그는 금강산의 웅장한 절경과 구월산의 선경을 찾아 나섰다. 「나는 청산을 향하여 가는데, 녹수야 너는 어디서 흘러 오느냐」 그를 반갑게 맞아 주는 것은 청산과 녹수 뿐, 그를 대하는 인심은 냉혹할 따름이었다. 「해가 저물어 두어 집 문을 두들겼으나 주인은 번번이 손을 내져어 가라고 한다. 두견새조차 이 야박한 인심을 아는 듯, 수풀을 떠나 돌아가라고 울어대누나」

이와 같이 인심이 사나와진 것은 당시 세도 정치의 학정과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잇달아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삿갓이 각도를 방랑하면서 하룻 밤씩 묵을 집이 대개 이처럼 구차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네 다리 소나무 소반에는 죽 한 그릇 놓였는데, 푸른 하늘 흰 구름의 그림자가 속에 어른 거리는구나. 주인이여 미안하게 여기지 마오, 나는 청산이 거꾸로 물에 비쳐 오는 것을 사랑한다오」

김삿갓의 차림이 워낙 초라하였기 때문인 지, 부자들은 그를 괄시하기 일쑤였다. 안변으로 가는 도중 그는 어느 마을 부잣집에 하룻 밤 잠자리를 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 「신선이 있으되 그는 부자만 알고,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 가난 뿐이로다. 부자와 가난이 따로 없나니, 빈자도 부자되고 부자도 빈자될 날 있으리라」 개성에서도 이 곳 못지 않는 푸대접을 받았다. 「고을 이름은 성을 연다고 하였는데 어찌 문을 닫으며, 산 이름이 소나무산인데 어찌 나무가 없다 하느냐. 날 저물었는데 손님 쫓으니 사람 인사 이럴 수가 있는가, 여의 동방에 이 곳 너 혼자 만이 진시황이 로구나」 진주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다. 「진주 원당리서 과객이 저녁 밥을 빌었도다, 종놈 나와서 아무도 없다더니 아이놈 나와 집안에 번고 있다 핑계로구나. 조선 땅에 처음 보는 인심이요, 경상도서 제일갈 고약한 집이러라. 동방에 이름 높은 예의의 우리 나라, 이 곳은 세상 인심이 아니로구나」

김삿갓은 천국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풍부한 해학으로 양반들의 행패를 꾸짖고 그들의 비행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저 양반 이 양반 하고 양반 타령이니 도대체 무슨 반이 양반인고, 조선엔 세 성이 그 중 양반인데, 내 김가는 가락에서 제일가는 양반이렸다」

김삿갓은 민중의 사랑 속에 해학과 풍자로 팔도 강산을 방랑하다가 1863년(고종 3)에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6. 죽음으로 보국한 조병세

조병세(趙秉世)는 1827년(순조 27)에 가평군 청평(淸平)에서 현감 조유순(趙有淳)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1859년(철종 1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고 1864년(고종 1)에는 철종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1874년(고종 11)에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고 1877년(고종 14)에는 대사성(大司成)으로 승진하였으며 이어서 대사헌 등을 거쳐 1887년(고종 24)에는 공조 판서가 되었다. 이듬 해에 예조 판서·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1889년(고종 26)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893년(고종 30)에는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 해인 1894년(고종 31)에 갑오 경장(甲午更張)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중추원(中樞院)의 좌의장(左議長)이 되었다. 뒤에 고종의 고문격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가평에서 세월을 보냈다. 1896년(건양 1)에 폐정(弊政) 개혁을 위한 시무책(時務策) 19조를 상소하고 1898년(광무 2)에 의정부 대신에 임명되었으나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 조약(乙己條約)이 체결되었다.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여러 나라로 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특수 이익을 인정받게 되자 곧 한국을 그의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진회(一進會)라고 하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게 하고 일본 정계의 원로인 (이또오)를 파견하여 일본 공사(하야시)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보호 조약안을 승인하도록 강요하였다. 조약안이 거부되자 그들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참정(수상) 한규설(韓圭卨)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고 외부(외무부)로 가서 외부 대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강제로 조약에 날인하여 버렸다.

이 을사 조약의 내용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를 일본이 통리 지휘한다는 것,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띤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못한다는 것, 일본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황제 밑에 통감(統監) 한 사람을 둔다는 것 등이었으니 요컨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병세는 통곡하면서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내 신하로서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79세의 노구를 무릅쓰고 상경하여 을사 5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주장하려고 황제의 알현을 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방해로 고종과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조병세는 참정 심상훈(沈相勳)·시종 무관장 민영환(閔泳煥)·특진관 이근명(李根命) 등과 백관을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가 상소의 우두머리로서 을사 5적을 처형할 것과 조약의 폐기를 단행할 것을 상소하여 황제로 부터 「소장을 보건대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처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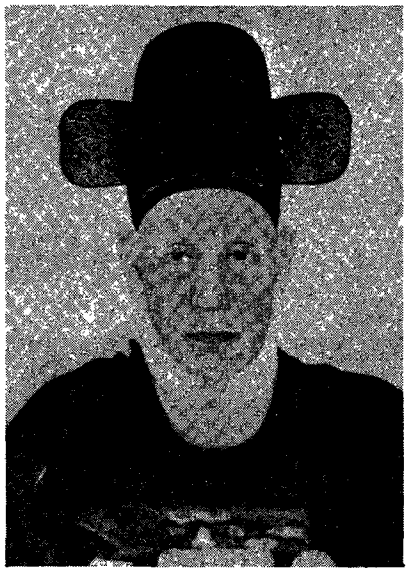
이튿 날, 상소가 별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둘 것 같지 않자 조병세는 원임 의정대신의 자격으로 각부(各部)에 통첩을 보내어 대소 관원의 궁내 집합을 통고한 다음, 이근영 등과 함께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심상훈·민영환·이근명 등과 백관을 인솔하고 수일간 궁궐에서 연좌하면서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27일에 일본 헌병들에 의하여 표훈원(表勳院)에 구금 당하게 되었다. 조병세가 구금된 뒤에는 민영환이 대신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조약 폐기를 요청하였지만 민영환 역시 연행되어 평리원(平理院)에 구금되었다.

뒤에 조병세는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가평에 추방되었으나 12월 1일에 다시 상경하여 대한문 밖에서 석고 대죄하면서 조약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때 일본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고 억지로 교자에 태웠다. 국난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분통히 여긴 조병세는 교자 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편을 꺼내어 마시고 족질 조민희(趙民熙)의 집에 당도 하였을 때 그의 용태는 이미 위독한 지경이었다.

당황한 일본 헌병들이 의사를 부르라고 수선을 떨었으나 이 때 그의 사위 이용직(李容稙)이 꾸짖기를 「이놈들아, 우리 대한의 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코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이 무슨 일로 간여 하며 또 돌아가시는 분을 욕보이느냐」고 하자 모두 도망쳐 버렸다. 조병세는 절치 부심하며 순국하니 때는 1905년 12월 1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치 부친상을 당한 듯이 슬퍼하였다.

그는 자결하기 전에 각국 공사 및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는데,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조병세는 원로 대신이나 우리 나라 사례에 비추어 국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오니 귀 공사는 즉각 회동하고 담판, 조약을 부인하여 우리의 주권을 잃지 말게 하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일본 공사에게도 서신을 보내 준열하게 꾸짖었다. 그의 생애야말로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료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 지를 보여준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27. 창의 호국의 최익현



최익현(崔益鉉)은 1833년(순조 33)에 포천에서 동중추(同中樞) 최대(崔垈)의 아들로 태어 났다. 그는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崔致遠)의 28대손으로서 호를 면암(勉庵)이라 하였는데, 면암이란 호는 그의 스승 이항로가 지어준 것이다. 그는 4세 때 단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수년에 걸친 흉년으로 가계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단양으로 이사한 후 그의 부친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 곳 인근에서 학식 높은 선생을 모셔다 두 아들을 공부시켰다.

최익현이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6세 때부터였다. 이 때부터 총명이 뛰어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장래를 촉망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이항로로 부터이다. 그가 11세 되던 해에 그의 집은 다시 양근 두털골로 이사를 하게 되어 14세 되던 해부터 이항로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 19세 때에는 그의 학문의 기초가 이항로의 영향하에 크게 잡혀 갔다. 그리하여 2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서울로 올라와 벼슬길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최익현은 1855년(철종 6)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1868년(고종 5)에는 사헌부 장령(掌令)에 올랐다. 이 때 최익현은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나 이 때 부터 그의 명성은 전국에 떨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익현의 대원군 공격은 당시 정권에서 소외되고 있던 민비 일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주게 되어 고종과 민비 일파로 하여금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첫 계기를 만들게 하였다. 이 때 부터 그는 민씨 일파의 비호를 받으면서 1873년(고종 10)에는 벼슬이 호조 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호조 참판의 사직을 청하는 동시에 강경하고 신날하게 대원군을 탄핵하는 폭탄적인 상소를 올림으로써 마침내 대원군의 10년 아성을 깨트렸다. 그리하여 결국 대원군을 하야하도록 만들었으나 그도 3사(三司)의 탄핵과 모든 관원들의 공격

을 받으며 의금부에 수감되었다가 마침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 후 2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개항(開港) 바로 전 해였다.

그가 44세 되던 1876년(고종 13)에 일본과 병자 수호 조약(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는 곧 상경하여 수호 조약 반대 상소를 준비하였다. 그는 우선 도끼를 메고 광화문으로 나아가 밤새워 노숙하면서 조약 체결의 불가함을 외치고 상소를 올리니 이것이 유명한 「5불가 척화 상소(五不可斥和上疏)」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최익현은 다시 의금부에 수감되었다가 흑산도에 위리 안치(圍籬安置)되었다. 소흑산도와 대흑산도를 옮아 다니는 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임오 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같은 사건들이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 경장(甲午更張) 후 최익현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이제 국권이 적들의 손에 들어 있으니 누구에게 사직 상소나마 올릴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이듬 해에 민비가 시해되는 을미 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나고 뒤이어 전국에 단발령(斷髮令)이 시행되자 이를 극력 반대하였는데, 단발령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조정으로 부터 이들을 설득하여 진압시키라는 선유 대관(宣諭大官)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 상소를 올리고 오히려 의병의 부득이한 충정을 변호하였다. 그 후에도 경기도 관찰사 등 여러 관직이 내렸으나 모두 사퇴하고 국내에 대소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여 일본을 배격할 것과 매국노의 처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05년(광무 9)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이제는 상소라는 소극적 방법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깨닫고 이듬 해에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무력 항쟁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 해 4월에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의 무성 서원(武城書院)에서 창의의 기치를 들고 각군에 격문을 발하였다. 최익현의 의병 부대는 정읍·순창을 거쳐 곡성에 이르러 호남 각군에 격문을 보낸 후 다시 순창으로 회군하였다. 이 때 그의 의병 부대는 제자 임병찬(林秉瓚)·임락(林樂) 등을 포함한 80여 명이었다.

6월에 전라도 관찰사와 순창 군수 등이 일본군을 끌고 공격하여 왔다. 최익현은 「왜놈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싸우다 죽기로 결심하였으나 그들 대부분이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 병사인 것을 알고 동족간의 살생은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들에게 퇴거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맹렬히 공격해 오므로 응전하다가 최익현 등 의사 12명이 사로잡혀 서울 일본군 사령부에 압송, 구치되었다.

그리하여 최익현은 대마도(對馬島)에 3년간 감금 한다는 일본군 사령부의 선고를 받고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로 압송되어 일본군 영내에 수감되었다. 거기에서 최익현은 일본인이 주는 일체의 음식을 물리치고 단식으로 항쟁하다가 국왕에게 올리는 마지막 상소를 구술하여 임병찬에게 전하게 하고 1906년 11월 17일 새벽에 순절하니 이때 그의 나이는 74세 였다.

최익현의 척사 사상은 강력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척사 사상은 일관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수호 조약 반대 상소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의병 항쟁으로 일생을 마칠 때 까지 40여 년을 일관하여 왔고, 초기의 호소, 항의 형식이던 상소를 말기의 무력 항쟁 형식으로 적극화시키고 마침내 순국 형식으로 그의 생을 마쳤던 것이다.

28. 충직 개결의 문장가 이건창

이건창(李建昌)은 1852년(철종 3)에 강화 사기리(沙器里)에서 이상학(李象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 이시원(李是遠)은 그가 세 살 때 부터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다섯 살 때에는 제법 글짓기를 하게 되었다 한다. 어느 봄날, 이시원이 다섯 살 된 손자를 업고 연못 가를 거닐다가 늘어진 버들가지 하나를 꺾어 손자에게 주면서 버들 피리를 만들자고 웃어보였다. 그러자, 등에 업힌 손자가 잠자코 무엇을 생각하더니 시를 지어 할아버지 귀에 읊어 드렸다. 「할아버지가 버들가지를 꺾으시니 피끄리는 한 가지의 봄을 잃었네」 이 시 읊는 소리를 듣자 할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진 채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동이 나타났다고 놀라와 하였다.

이건창을 훌륭하게 양육하던 이시원은 자결하는 마당에서도 손자를 잊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어 권면하였으므로 이 때 열다섯 살이던 이건창은 할아버지의 간곡한 뜻을 평생토록 간직하였다. 이 처럼 그의 일생에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할아버지는 강직한 관료로서 병조 판서를 역임한 후 강화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1866년(고종 3) 9월에 프랑스 함대가 침입하자 상경하여 외인을 물리치라고 상소하고 강화성이 함락될 때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이 때 아우인 전 군수 이지원(李止遠)이 황급히 달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이 원귀가 되시어 적진으로 쳐 들어가신다며는 부디 이 동생으로 하여금 말채찍질을 하게 하여 주십시요」 하고 함께 자결하였다.

이건창은 15세의 약관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가 출사하여 조회에 참석할 때, 고종은 반열 중에 나이 어린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저소년 관원이 몇 살이나 되었느냐」고 묻자 승지가 「임자생」이라고 대답하자 고종은 반가운 듯이 웃으면서 자기와 동갑이라고 하며 기뻐하였다. 그 후 부터 조회 때면 잊지 않고 주목하며 친근감을 보이었으므로 앞날의 벼슬길이 밝게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건창은 천성이 강직하여 불의에 대하여는 추호도 용납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규탄하였으므로 그의 벼슬은 차질과 기복이 거듭하여 끝내 영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건창은 24세 되던 1875년(고종 12)에 충청도 암행 어사가 되어 감사 조병식(趙秉式)의 부정을 적발하였다가 그 휴유증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그가 암행 어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병식이 그를 매수하려고 많은 금전을 보냈는데, 그가 노

기를 띠고 「왕명을 받는 어사로서 뇌물을 받는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호통쳐 쫓아 버렸다. 그러자 뒷 일이 두려워진 조병식이 「이 어사가 대원군의 지시를 받고 죄 없는 나를 모함하려 한다」고 하였다. 당시는 대원군이 권세를 잃고 하야한 뒤여서 그 측근들이 제거되고 있던 때라 이건창을 대원군의 측근으로 몰려는 수작이었다. 이 때 민씨 일파의 대표자인 민규호가 이 말을 듣고 이건창에게 「그대가 너무 극성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고 위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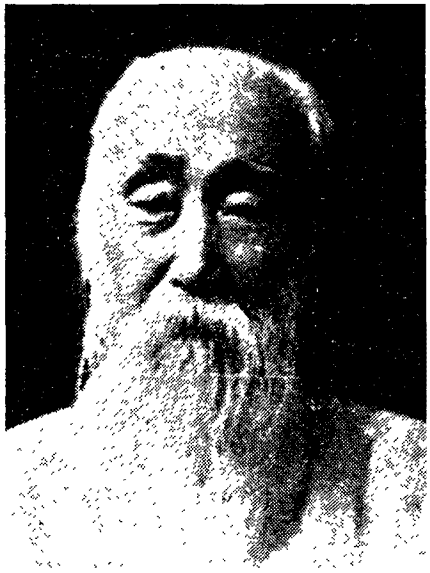
그러나, 이건창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조병식이 숨겨 둔 수만금의 장물을 적발하고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건창이 사감으로 조병식을 무고 한다는 말을 들은 고종이 다른 어사를 파견하여 확인하게 하였으나 이건창의 보고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조병식이 벌을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선비를 매질로 죽였다 하여 이건창이 벽동으로 귀양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혹한 유배에 대하여 조야의 모든 사람들이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그 바람에 도리어 이건창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후 민규호는 이 일을 뉘우치고 세상을 떠날 때 여한이 된다고 못내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건창은 29세 되던 1880년(고종 17)에 유배에서 풀려 경기 어사가 되었고 32세에서 39세 사이에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여 강화에서 6년간 집상하였다. 39세 되던 1890년(고종 27)에 고종의 부름을 받고 한성 소윤(小尹)에 임명되었다. 이건창은 부임하자 고종에게 화폐 발행을 외국인에게 의뢰하지 말 것과 국민이 토지나 가옥을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상소를 올렸는데, 앞의 것은 묵살되고, 뒤의 것은 외국인의 압력으로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1892년(고종 29)에 함흥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한성 소윤이던 이건창이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우선 감사 이원일(李源逸)을 파직시켰다. 그가 41세 되던 해에 상소 사건으로 보성에 유배되었으며 갑오 경장 후 여러 관직이 내렸으나 모두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는데, 43세 때에 해주 관찰사로 임명된 것을 여러 차례 사퇴하다가 그로 인하여 또 다시 고군산도로 유배되었다. 그 후 일체 관직에 오르지 않다가 1898년(광무 2)에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건창이 살던 시대는 양요·운양호 사건·개국 등으로 복잡 다다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부 이시원의 서양인 배척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는 타협할 줄 모르는 충직 개결(忠直介潔)한 성품 탓으로 그의 생애는 파란으로 점철되었다. 이건창은 능숙한 문장으로 「명미당집(明美堂集)」과 「당의 통략(黨議通略)」 등의 업적을 남기고 있다.

29. 한말의 대문장가 김윤식



김윤식(金允植)은 1835년(헌종 원년)에 광주에서 김익태(金益泰)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윤식은 영의정을 지낸 김육(金堉)의 9대손으로서 호를 운양(雲養)이라 하였다. 그는 당대의 대학자인 유신환(俞莘煥) 밑에서 공부하였는데, 유신환 문하에는 수제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그와 한장석(韓章錫)·민태호(閔台鎬) 세 사람은 장차 대제학 감이라는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김윤식은 40세가 되는 1874년(고종 11)에야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876년(고종 13)에 황해도 암행 어사가 되고 1881년(고종 18)에는 영선사(領選使)가 되어 학생 25명과 기능공 13명 등 60여명을 인솔하고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가 청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 충주로 피난하여 숨어 있던 민비가 비밀리에 고종과 연락을 취하여 김윤식으로 하여금 청국 정부의 구원을 교섭하게 하였다.

김윤식이 이홍장(李鴻章)과 교섭하여 청나라 함대가 출동하게 되고 청군이 군란의 책임자로 대원군을 잡아 가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년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던 대원군은 잡혀가고 민씨 외척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김윤식은 청군을 끌어들인 공로로 청나라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임명되고 돌아오자 즉시 공조 판서로 승진되었으며 두 달 뒤에는 예조 판서로, 다시 30일 후에는 병조 판서로 발탁되었다.

이와 같이 김윤식은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과거에 합격한 지 10년이 못되어 판서에 까지 올랐으나 1887년(고종 24)에 고종과 민비의 노여움을 사서 충청도 면천(沔川)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갑신 정변 후 청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서로 대립하게 되자 고종과 일부 외척들이 만일의 경우 조선 왕조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3의 세력으로 러시아를 생각하고 친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친청파인 김윤식이 이에 불만을 품고 정권을 대원군에게 넘기라고 주장하다

가 고종과 민비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이다.

면천에서 8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김윤식은 시짓기에 몰두하여 그의 훌륭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가 귀양에서 풀려 서울로 돌아올 때 읊은 시이다. 「눈 앞에 오던 길 더듬어 가니, 귀양길 떠나던 날 또 한 새롭다. 산 속에 묻혀서 늙어만 가니, 풍류에 시달린 몸 여위었구나. 귀양살이 몇 번이나 탄식했더냐, 가을 바람 더불어 서울로 간다. 모든 죄 이제는 씻겼다 한들, 다시는 벼슬길에 나지 않으리」

1894년(고종 31)에 동학난을 계기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주도하에 갑오 경장이 시작되자 유배에서 풀려나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친일파 김홍집(集弘集) 내각이 성립하자 외무 대신에 취임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청나라 세력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적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조선 정부 내에 친로(親露) 세력이 등장한 때문이다.

조선에서 친러시아 세력이 대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 일본이 다시 일본 세력을 만회하려고 1895년(고종 32)에 을미 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민비와 민씨 일파가 친로 정책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을미 사변으로 국민의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친로파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播遷)하도록 하였다. 그 바람에 친일 내각의 김홍집 등이 피살되고 유길준(俞吉濬)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때 외무 대신이던 김윤식은 제주도로 종신 유배되었다.

김윤식이 제주도에서 지도(智島)로 옮겨 10여 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일본이 노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고 1905년에는 을사 조약을 강요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그 후 1907년에 이완용 내각이 성립하자 김윤식은 종신 유배에서 풀려나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명됨으로써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다. 1910년 김윤식은 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한 달 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자 일본이 한국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일대 은상(恩賞)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김윤식은 비굴하게도 자작(子爵)이란 작위와 거금 5만원을 받았다.

김윤식은 뛰어난 대문장가였으나 정치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입신을 위해 민씨 일파의 수족이 되어 대원군 납치에 협력하였고, 일본이 민비를 살해하였을 때에는 등을 돌려 일본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끝내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주는 작위와 금전을 거부할 용기마저 없었고, 합방 후에는 중추원의 부의장과 경학원(經學院)의 대제

학을 사양하지 않았다. 김윤식은 회한과 자책 속에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자 1919년 3월 1일에 독립 만세 소리와 함께 민족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 때 김윤식은 전일 학부 대신으로 작위를 받았던 이용직(李容稙)과 함께 2인 연명으로 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보내는 「독립 청원서」를 냈다. 이 사건으로 헌병대에 체포되어 두 달 가까이 투옥되었다가 고령인 때문에 집행 유예로 석방되었다. 이 때 김윤식은 작위를 반환하고 회한 속에 3년을 지내다가 1922년에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는 시문(詩文)을 엮은 「운양집(雲養集)」이 있다.

30. 비운의 왕비 명성 황후



명성 황후(明成皇后)는 1851년(철종 2)에 여주에서 민치록(閔致祿)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는 명성 황후보다도 민비(閔妃)로 더 많이 불리우고 있다. 민비는 9세 때 부모를 여의고 여주 본가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1866년(고종 3)에 부대부인(대원군 부인) 민씨의 천거로 왕비에 책봉되었다.

민비가 처음 왕비 물망에 올랐을 때 부대부인이 그를 소개한 말을 들어 보면, 「그 인물됨이 총혜 명민하여 인근의 동정과 칭찬을 받아 왔고, 스스로 글과 글씨를 공부하여 이제는 어느 양반집의 처녀에 비한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민비가 총명하고 지혜있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비가 왕비로 책봉되어 궁중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고종에게는 이미 총애하는 궁인(宮人) 이씨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종이 민비를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냉담하였다.

아내로서의 애정을 받아 보지 못한 민비는 슬픔과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책읽기에 열중하였는데, 특히 고도의 경륜을 전개하고 있는 「춘추 좌전(春秋左傳)」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민비가 궁중에 들어온 지 3년 째 되는 1868년(고종 5)에 궁인 이씨가 완화군(完和君)을 낳았는데, 고종은 말할 것도 없고 대원군이 이를 크게 기뻐하자 대원군에 대한 불만과 질투가 폭발하여 민비는 자기에 대한 왕의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하여 왕의 친정(親政)을 책동하는 동시에 자기 세력과 대원군의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대원군을 실각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민비는 우선 외척 민씨 중에서 가장 가까운 오라버니 민승호(閔升鎬)를 비롯하여 민규호(閔奎鎬)·민태호(閔台鎬) 등을 차례로 정부 요직에 등용하게 하고, 민승호를 시켜 조대비의 친정 조카인 조영하(趙寧夏)와 대원군에게 밀려난 안동 김씨 집안의 김병기(金炳冀) 등을 포섭하였으며, 대원군의 맏아들인 이재면(李載冕)이 우둔함을 이용하여 온갖 기밀을 캐 내는 한 편, 은연중 대원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대원군의

친형 이최응(李最應)을 포섭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원군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품고 있는 유림의 거두 최익현에게도 손을 뻗쳐 확고한 세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1871년(고종 8)에 민비가 원자(元子)를 낳았으나 며칠만에 잃고 말았다. 왕자가 생후 사흘이 지나도록 대변을 보지 못하여 걱정하던 중, 대원군이 산삼을 쓰라고 권고하는 바람에 산삼을 썼더니 왕자가 이틀만에 요절하고 말았다. 왕자가 죽은 것이 산삼을 먹은 때문이라고 단정한 민비는 더욱 대원군을 증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복궁 중건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등 대원군의 실정(失政)이 계속되자 1873년(고종 10)에 민비는 최익현을 동부승지로 발탁하고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대원군파의 반대 상소와 최익현의 처벌을 주장하는 모든 상소를 물리치고 고종에게 친정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민씨의 외척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때부터 민비는 대원군 계열의 인사들을 몰아내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폐하여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민비가 대원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대원군을 하야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대원군과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고 암투가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875년(고종 12)에는 민비의 심복인 민승호가 대원군이 보낸 상자를 열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어머니·아들과 함께 폭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듬해에는 이최응 집에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1881년(고종 18)에는 대원군이 아끼는 서장자(庶長子) 이재선(李載先)이 반역 음모 사건으로 사약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구식 군대들이 임오 군란을 일으키자 대원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민비를 제거하려고 민비가 죽은 것으로 선포하였는데,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한 민비가 비밀리에 고종과 연락을 취하고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청군의 출동으로 군란이 진압된 뒤 민비는 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하여 가게 하였다. 다시 민씨 정권을 일으킨 민비는 대원군파에 대한 탄압에 열중하는 한편, 무당을 궁중으로 끌어들여 연일 굿을 하며 명산 대천에 기도를 드린다고 국고를 탕진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민씨 일족의 부패도 극에 도달하자 1884년(고종 21)에 개화당(開化黨)이 갑신정변을 일으켜 민씨 일족을 비롯한 사대당(事大黨)을 실각시켰으나 곧 민비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개화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갑신 정변 후 청의 간섭이 심하여지자 이에 염증을 느낀 고종과 민비가 점차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1894(고종 31)에 동학란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 경장을 추진하여 김홍집 등의 친일파 내각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청일 전쟁 후 3국 간섭으로 일본의 허약함이 드러나게 되자 조선 정부 안에서 일본에 대한 배척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비가 정부

에서 박영효(朴泳孝) 등 친일 세력을 몰아내고 이범진(李範晋) 등 친로파를 기용함으로써 친로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조선에 친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싫어 한 일본이 1895년(고종 32)에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민비는 30년간에 걸친 정쟁에서 기발하고 치밀한 수완을 발휘하였으나 대원군과 함께 민비는 강력한 외세와 결탁하는 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데 대하여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서로 쫓고 쫓기다가 그들이 불러들인 외세에 걷잡을 수 없이 휘감기고 결국 민비는 그들 손에 피살되고 말았다. 민비에게는 1897년(광무 1)에 명성(明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31. 연해주의 독립군 사령관 이범윤

이범윤(李範允)은 1853년(철종 4)에 고양에서 훈련 대장을 역임한 이경하(李景夏)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북간도(北間島)의 관리사(管理使)가 되면서 부터인데 1881년(고종 18)에 청국은 간도를 개간한다는 구실로 이곳의 우리 교포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 간도의 소속 문제가 제기되어 1883년(고종 20)에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하여 담판하게 하였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903년(광무 7)에 간도의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사를 두게 되었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범윤이다.

이범윤은 북간도 일대를 순시하면서 청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동포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동포 중에서 장정을 뽑아 자위대인 사포대(私砲隊)를 조직 하였다. 이 사포대는 점차 강화되어 그 곳 장정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의병·군인들까지 합세하게 되어 훗 날 이범윤의 독립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04년에 노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범윤은 5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러시아에 가담하여 싸웠다. 그러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하자 간도 지방에 대한 일본군의 간섭이 잦아졌고, 청국에서도 간도의 자치 운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터라 한국 정부에 강경하게 항의하여 왔으므로 1905년에 이범윤에게 소환장을 냈는데, 이범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항일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로 들어갔다.

연해주는 우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의 영토였으므로 초창기의 국외 항일 투쟁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상설(李相卨)·장지연(張志淵)·신채호(申采浩)·안중근(安重根)·이위종(李瑋鍾)·홍범도(洪範圖) 등이 그들이다. 이범윤은 무력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 일제를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곳에서 독립 의용군을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므로 4,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1908년 부터 이범윤의 의병 부대는 국내 침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국내 침투로는 북간도를 통하는 길과 두만강 하류를 건느는 길, 그리고 동해 바다를 통하는 길 등 세 갈래였다. 작전 방법은 부대를 100명 내외의 소단위 부대로 편성하고 일본군의 경비가 허술한 곳을 골라 산발적으로 침투하여 갑산(甲山)·무산(茂山) 등지에 집결

한 후 장기적인 국내 항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7월에서 10월에 이르기 까지 이범윤의 의병 부대는 속속 경흥(慶興)·혜산진(惠山鎭)·성진(城津)·경성(鏡城)·회령(會寧)·서수라(西水羅)·명천(明川)·길주(吉州) 등 여러 지역으로 침투하여 그 곳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서 등을 공격 파괴하였다. 이범윤의 의병 부대가 감행한 국내 침공작전은 일본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일제는 두만강·압록강 일대에 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는 한 편, 러시아 당국에 한국 의병의 무장 해제와 체포 송환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범윤의 국내 침투 작전은 1910년의 합방 전후까지 지속되었다.

한일 합방설이 고조되자 이범윤은 유인석(柳麟錫) 등과 함께 「성명회(聲鳴會)」를 조직하고 각국 정부에 전문을 발송하여 합병 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 합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범윤은 각지에 격문을 배부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길은 한국민이 총궐기하여 1대 1로 일본인을 죽여 나가는 극단적인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또 한 「대한 인민 총대」 유인석의 이름으로 영문과 불문으로 된 호소문을 만들어 각국에 보내면서 일제의 한국 병합을 승인하지 말 것을 청원하였다.

1919년에 3·1운동이 전개되자 간도 지방에서는 여러 갈래의 독립 운동 단체가 조직되어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는 데, 이범윤은 동만주 각지에 산재한 의병을 규합하여 「의군부(義軍府)」를 조직하고 그 총재가 되었다. 그 후 본부를 연해주로 옮기고 연길(延吉)·혼춘(琿春) 등지에 5개 중대 병력을 분산 주둔시키고 무장 투쟁과 군자금 모금, 친일파 숙청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1921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독립 단체의 힘을 집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 독립 군단(大韓獨立軍團)」이 창설되었는데, 이범윤의 「의군부」와 「광복단(光復團)」도 이에 포함되었다. 「광복단」은 이범윤을 단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항일 독립 단체이다.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를 이끌던 서일(徐一)이 자결한 후 이범윤은 「대한 독립 군단」의 총재로 추대되었다. 1922년에 「대한 독립 군단」이 막대한 타격을 입자 김좌진(金佐鎭) 등이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였는데, 이 때 이범윤은 참의원장(參議院長)으로 추대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3세에 이르고 있었는데, 그 후 그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순국하였는지 자세하지 않다. 전하는 바로는 젊은 독립 투사들과 함께 국내 침공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적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이범윤은 무력 투쟁으로서만이 조국을 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독립 운동가의 대원로였다.

32. 13도 의병 대장 이인영

이인영(李麟榮)은 1867년(고종 4)에 여주에서 출생하여 일찍 부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1895년(고종 32)에 일본인들이 을미 사변을 일으켜 국모를 살해하자, 유인석(柳麟錫)·이강년(李康秊)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상도 문경에 은퇴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05년에 을사 보호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국운이 기울어지게 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의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인영도 의병을 일으킬 결심이었으나 그 때 마침 부친이 와병중이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자 9월에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활약하던 의병장 이은찬(李殷瓚)과 이구재(李九載) 양인이 500여 명의 의병을 소모한 후, 문경으로 그를 찾아 의병의 총대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인영은 이를 승락한 후 9월 중에 원주로 출진하여 관동 창의 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르고 4방에 격문을 발하여 의병을 소모하였다. 격문의 내용이 비분 강개에 차 원근으로 부터 응모자가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 편, 이인영은 관동 창의 대장의 이름으로 각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각국 영사관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고 한국의 처지를 소상하게 개진하면서 의병은 순수한 애국단체이니 이를 국제 공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하여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의 성원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 호소문이야말로 항일 의병 투쟁의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이인영의 의병 부대는 원주를 떠나 횡성·지평(砥平)·춘천 등지를 두루 돌면서 전국의 의병을 규합하기 위하여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각도에 격문을 발하여 11월에 각도 의병 부대를 경기도 양주로 집결토록 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고립적인 의병 항쟁을 지양하고 대동 단결한 힘으로 서울을 공략하여 의병들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인영의 격문을 본 각도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모여들었다. 이 때 모인 의병장들은 경기도의 허위(許蔿)·전라도의 문태수(文泰洙)·충청도의 이강년·강원도의 민긍호(閔肯鎬)·경상도의 신돌석(申乭石)·황해도의 권중희(權重熙)·평안도의 방인관(方仁寬)·함경도의 정봉준(鄭鳳俊) 등이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는 통문을 내지 않

았는데도 평안도의 방인관이 80여 명의 의병을 함경도의 정봉준은 7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자발적으로 연합 전선에 참가하였다. 이 때 집결한 연합전선의 병력수는 약 1만명(혹은 8,000명)이었는 데, 이 가운데에는 근대적 무기인 양총(洋銃)을 가진 과거 진위대(鎭衛隊) 병사와 기타 훈련받은 군인이 약 3,000명에 이르렀다. 군의 부서를 정하여 이인영이 13도 총대장이 되고 허위가 군사장(軍師長)이 되었다.

이와 같이 13도 연합 의병 부대가 편성된 후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때 연합 의병 부대의 작전계획은 동대문 밖에서 적군이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후 이듬 해 정월에 일제히 서울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총대장인 이인영에게 부친 사망의 부음이 전해졌다. 그가 떠날 때 병석에 누어 있던 부친이 이 해 음력 12월 25일에 사망한 것이다. 당시 양주에 머물고 있던 이인영은 뒷 일을 군사장인 허위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그 날로 문경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군사장인 허위가 친히 300명의 정병을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집결하기로 약속한 의병 부대와의 연락이 끊어지고, 이러한 기미를 눈치 챈 일본군에게 각처로 부터 진군하여 오던 의병 부대가 개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결국 연합 의병 부대의 서울 탈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인영은 문경으로 돌아가 부친의 장례를 마쳤다. 이 때 다른 의병들이 그에게 다시 의병을 일으키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에 불충한 자는 어버이에게 불효요, 어버이에게 불효한자는 나라에 불충이니, 충이니 효니 하는 것은 그 도가 하나요 둘이 아니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친 뒤 재기하여 13도의 창의군을 일으켜 권토중래의 세력으로 일본인을 소탕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 후 이인영은 변성명하고 노모와 두 아들과 함께 상주에 숨어 살다가 다시 충청도 황간 금계동(金溪洞)으로 옮겨 살던 중, 1909년 6월 7일에 일본군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9월 20일에 경성 감옥에서 형을 받아 순국하였다.

이인영이 의병을 소모할 때의 방법은 사람을 시켜 마을마다 격문을 보내어 일반에게 알리고 응모자를 비밀리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때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호응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를 취조하던 일본인이 「의병의 내정을 일본 관헌에 밀고하였다는 혐의로 인민을 살해한 일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없었다. 의병의 내정을 밀고하는 자는 한국인 중에는 없다」고 한 사실을 통하여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33. 이국에서 순국한 이한응

「슬프다. 나라는 주권을 상실했고 국민은 평등을 잃었으니 무릇 교섭 관계로 치욕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진실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어찌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슬프다, 종사가 장차 없어질 것이고 민족은 장차 노예가 될 것이니 구차히 살려고 한다면 욕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어찌 흡연히 죽는 것보다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에 죽기로 결심하였으니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오」

위의 글은 영국 주재 서리 공사 이한응(李漢應)이 1905년에 런던에서 자결하면서 부인에게 남긴 유서의 한 귀절이다. 이한응은 1874년(고종 11)에 용인에서 군수를 지낸 이경호(李璟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6세 되던 1890년(고종 27)에 상경하여 국가 장래에 원대한 경륜을 펴볼 결심에서 관립 영어학교에 입학하였다. 2년간의 학업을 아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더욱 학문 연구를 계속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 때 그의 부친이 친군영(親軍營) 무남영(武南營)의 우령관(右領官)으로 동학란 진압에 출정하였다가 전사하였다. 그러므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단념하였으나 당시의 국내외 정세는 그를 버려 두지 않았다.

1897년(광무 1)에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로 임명되고 2년 뒤에는 관립 영어학교의 교관으로 전출하였는데, 이런 직을 거치는 동안 그는 공부에 충실함은 물론, 남들이 신망하는 인격과 덕행을 쌓았다. 그리하여 1901년(광무 5) 3월에는 영국·벨기에 양국 주재 공사관의 3등 참서관(參書官)으로 임명되어 공사 민영돈(閔泳敦)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부임하였다. 이 때부터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이한응은 런던에서 공사 민영돈을 충실히 보좌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런던 외교계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명예 총영사이던 외교관 「마켕톤」이란 사람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가장 공정한 대표이고 학문에 근실한 모범적 인물이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를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잘 보존한 인물이다」라고 평하였다. 국내에 있어서도 그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1904년에 민영돈이 귀국한 후 영국주재 서리 공사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때는 바야흐로 한국이 국제적인 고아로 전락하는 시기였다.

1904년에 노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이 서울로 침입하여 각종 건물을 점유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를 성립시키고 이어서 제 1 차 한일 협약(第 1 次韓日協約)을 강요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그에게 자문한 후 시행한다는 것이고, 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초빙하여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 문제를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 정부는 재정과 외교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한국의 외교 사절이란 존재 가치 조차 없게 되었다. 이 때 이한응은 서양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들에게 전문을 띄워 우국 충정의 합일된 의지를 모으려고 하였으나 동조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편, 일제는 제 1 차 한일 협약을 근거로 한국은 자주 능력이 없다고 선전하였으므로 이한응이 아무리 호소하고 탄원하여도 구미 열강의 외교관들은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더우기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영일 동맹(英日同盟)의 내용을 고쳐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경제·군사상의 지도 감독을 맡는다」는 조문을 넣고 영국의 인정을 받게 되매 이제 영국은 일본의 행동에 대하여 동조 내지는 방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 주재 서리 공사로서 이한응이 그 부당성을 즉각 항의하였으나 당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급급하던 영국은 이를 묵살하고 한국 공사에 대하여 무례한 행동까지 하였다. 더우기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의 인품과 행동에 깊은 존경심을 가졌던 일반 영국인들까지 교만하게 대하며 모욕을 서슴치 않는 일이었다. 이역에서 조국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더 버틸 수도 없고 더구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안 이한응은 마지막으로 순국할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1905년 5월 12일에 그는 조국에 대한 마지막 유서를 쓰고, 형과 부인에게 따로 유언장을 남긴 후 동쪽 조국을 바라보면서 독약을 마시고 순국하니 이 때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그의 자결은 세계 각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하였다. 그의 죽음은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최초의 순국이다. 그러나, 그의 의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영환(閔泳煥)·조병세(趙秉世) 등이 이어서 순국함으로써 나라 사랑의 충절을 길이 빛나게 하였다.

이한응이 순절한 후 그의 시신은 고종의 특명으로 국내로 옮겨져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德成里)에 안장되었다. 뒤에 내부 협판(內部協辦)이 추증되고 장충단(奬忠壇)에 제향되었다.

34. 임진강 의병 용장 이은찬

이은찬(李殷瓚)은 1878년(고종 15)에 양근(楊根)에서 태어났다. 1905년(광무 9)에 을사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자 유학에 종사하던 이은찬이 이를 좌시할 수 없어 강원도 홍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 조약의 체결이 고종의 뜻이 아니고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었으므로 고종은 1907년(광무 11) 6월에 네덜란드의 헤이그(해아)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자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鍾) 세 사람을 밀사로 파견하여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회의 의장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서 외교권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일제는 이해아 밀사 사건을 기화로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丁未 7條約)을 체결하여 소위 차관 정치(次官政治)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일제는 한국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 군대를 해산하여 버렸다.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고 해산된 군대들이 이 의병에 합류하였다. 이 때 이은찬은 원주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문경으로 이인영(李麟榮)을 찾아가 13도 연합 의병 부대 결성 문제를 상의하고 그에게 총대장에 취임해 줄 것을 간청하여 마침내 13도 연합 의병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은찬은 총대장 이인영의 중군(中軍)이 되어 양주에 전국 의병을 집결시킨 후, 24진을 편성하고 1907년 12월에 서울 탈환 작전을 전개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소속 의병 부대를 거느리고 포천·양근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가 임진강 유역에서 의병장 허위(許蔿)와 손을 잡고 재차 연합 의병 부대를 편성한 후 이 곳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908년 말 부터 1909년에 걸쳐 임진강 유역의 의병 세력은 더욱 증강되었다. 이은찬의 의병 부대는 적게는 수 10명, 많게는 200명 내외의 집단을 이루고 양주·포천·양평·연천·삭령(朔寧)·금천·백천·연안을 연결하는 선 안과 해상 도서 지방에 출몰하면서 대집단의 일본군과는 싸움을 피하고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게릴라 전법으로 일본군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한 편, 이은찬은 이 지방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지방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민의에 따라 군량이나 군자금을 마련할 때에도 직접 지방민들에게 요구

하지 아니하고 각 면과 동의 장에게 통고하여 징수하게 하고 구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을 한 번도 기일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또 필요시에는 군포와 비슷한 증표(證票)를 발행하여 그것으로 물자와 바꾸고 뒷 날 반드시 돈과 교환하여 주는 등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이 더욱 그의 의병 부대를 믿고 지지하게 되었다.

1909년 1월 중순에 이르자 일본군의 압박이 심해졌다. 그러므로 이은찬의 의병 부대는 연안·청단(靑丹) 중간 지구에서 남방 연안 도서 지방으로 이동하여 활동하게 되었는데, 1월 19일에는 야음을 타서 배 2척에 분승하고 연평도의 일본군 파견대를 야습하여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후 증산도(甑山島)로 후퇴하였다. 그 후 2월 27일에는 약 300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윤인순(尹仁淳)·정용대(鄭用大) 등의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양주 북방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리고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3월 10일에는 포천·양평 등 각군에 주재하는 헌병 보조원들에게 귀순할 것을 효유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이은찬은 적정을 내탐하기 위하여 부하 수 10명을 거느리고 서울에 잠입하였다가 3월 31일에 용산 정거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은찬은 체포되자 비분통절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결사 보국의 마음으로 분투하다가 불행하게도 이 모양이 되었으니 실로 동포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죽은 후에는 저 세상에서라도 동포를 보우하겠노라」하고 그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재판정에 선 이은찬은 일본의 한국 침탈을 통절하게 힐책하고 또 「내가 대소 40여 번 싸움에서 일본군 470여 명을 참살하였으니 속히 나를 죽이라」고 소리높이 외쳤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의거는 홀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으니 오늘에 이르러 어찌 자신의 영욕을 생각하랴」하고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고 한다. 「한 가지 오얏나무로 만든 배가 되어 창생을 건지고자 해변에 떴는데, 아무 공 못세우고 먼저 침몰하니 그 누가 동양 평화 이룩하리오」

이 해 6월 27일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니 이 때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황현(黃玹)이 지은 「매천 야록(梅泉野錄)」에는 「이은찬이 양주에 머물면서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양주·포천사이를 왕래하면서 적병을 습파하여 총포를 빼앗은 것이 수삼십이고, 적의 머리를 벤 것이 100여 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로 보더라도 그의 항일 의병투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5. 의병 항쟁의 효시 이춘영

이춘영(李春永)은 1869년(고종 6) 지평(砥平) 땅 용문산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기개가 있고 또 도량이 있어 주위 사람들은 그가 장래 크게 쓰일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다. 1876년(고종 13)에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나라안이 어지러워지자 항상 탄식하면서 「나라가 이와 같은 데도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낸 남자의 뜻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찍 부터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 가운데 세도있는 사람이 그를 끌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한적한 곳에 숨어 살면서 고향의 친구인 안승우(安承禹) 등과 같이 교우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처자를 거느리면서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일본 주도하에 갑오 경장이 추진되자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1895년(고종 32)에 일본인들이 을미 사변을 일으켜 국모를 살해하고 이어서 단발령(斷髮令)을 내리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에게 「나는 지금 사람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하는 판가름을 당하여 바른 길을 찾아 죽고자 하는 것은 실로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다. 다만, 차마 못할 일은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끝내 봉양을 못해 드리는 것이니 원컨데 그대는 아무쪼록 내 뜻을 받아서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나의 지하의 넋을 위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하직하고 떠났다.

그는 지평으로 나아가 밤마다 포수들과 어울리면서 사람과 짐승의 판가름이 난다는 말로 깨우치니 많은 포수들이 감격하여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포수들의 영수인 김백선(金百先)을 찾아 그의 뜻한 바를 전하였다. 당시 김백선은 군수 맹영재(孟英在)를 이끌어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으므로 울분에 차 있던 때라 이춘영의 말을 듣고 쾌히 응락하였다.

그리하여 김백선의 부하들이 원주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때 그의 고향 친구 안승우가 제천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의병을 일으킬 계획임을 알고 달려가 서로 힘을 합하게 되었다. 이춘영 등은 이해 11월에 원주 땅 안창(安昌)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먼저 원주성을 점령하였다가 다시 제천을 점령하고 이 곳에서 군의 지휘 계통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승우와 서상렬(徐相烈)을 선생으로 추대하고 이필희(李弼熙)를 대

장으로 삼으면서 이춘영은 그가 먼저 제창한 공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중군(中軍)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진용을 갖춘 의병 부대는 단양으로 진을 옮기고 이 곳에서 복병을 두었다가 일본군이 들어온 후에 좌우에서 협격하여 큰 승첩을 거두었다. 그리고 죽령(竹嶺)을 넘어 경상도 풍기(豊基)에 당도하였는데, 도중에 도망한 의병들이 많았으므로 이필희가 군사와 작전권을 그에게 넘겼다. 이춘영은 하는 수 없이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영월(寧越)에 당도하니 영서 지방을 돌고 온 안승우 등이 합류하여 왔다. 이 때 의병 부대의 진용을 재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유인석(柳麟錫)이 안승우 진중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이춘영과 안승우가 유인석에게 간청하여 대장에 오르게 하고 이춘영이 중군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의병 부대의 지휘 계통이 확립되고 의병들의 기세가 떨치게 되었다. 의병 부대는 제천을 공략하여 친일파를 숙청하고 계속 전진하여 충주성을 공략하였다.

군의 기세가 크게 오르자 이춘영은 대장 유인석에게 「지금 적진이 앞뒤로 있으니 후퇴한들 지킬 수도 없고 전진하자니 힘을 쓸 수도 없는 즉 지금의 계획으로는 먼저 수안보(水安堡)를 무찌르고 한 부대의 군사로 하여금 조령(鳥嶺)의 요충지에 웅거하여 지키게 하며 전선(電線)을 모두 끊어 버리면 천리의 적진이 머리와 꼬리가 끊어져 앞에서는 뒤를 구원할 수 없고 뒤에서는 앞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적세가 분산될 것이며, 우리는 뒤로 조령 밖의 전 세력을 거두어 들이고 4면으로 육박하면 서울의 적을 수일 내로 무찔러 없애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먼저 수안보를 공략하도록 건의하였다.

유인석은 그의 작전 계획이 훌륭함을 인정은 하였으나 그 위태로움을 걱정하였다. 그러자 이춘영은 「지금 사기가 한창 올랐는데, 장수된 자가 만약 겁을 먹고 친히 싸우기를 꺼린다면 군의 심리가 반드시 해이해질 것입니다. 또 각처 진영의 남은 병사들이 밖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유독 소장만이 중군의 책임을 진 까닭에 안에서 편안히 있자니 실로 오래 전 부터 마음에 민망하였읍니다. 청컨대 한 부대 병사로서 잠깐 사이에 무력을 빛내어 한편으로는 적세를 끊어 우리 계획을 달성하고, 한편으로 여러 군사의 마음을 위로하면 앞으로의 행진을 화목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유인석도 그 말을 옳게 여겨 허락하였다.

당시 수안보에는 일본군의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춘영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고 진군을 개시하였다. 이 때 유주막에서 패배당한 적병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달천(達川)까지 추격하였으나 이미 적병이 강을 건는 뒤였으므로 다시 수안보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수안보에 도착한 이춘영은 이 곳을 포위하고 4면에서 압

축해 들어갔다. 그리하여 상호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때 이춘영이 6혈포를 시험 발사하였으나 탄환이 발사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고 맞은편 나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날라온 유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36. 대의의 실천자 안승우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대의이니 대의란 다만 죽음으로써 지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기계와 병력이 비록 저들에게 미치지는 못하나 오히려 서로 백중할만한 정도요, 다만 죽은 사자 하나도 저들이 능히 당적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탐하여 이 개화 역당(開化逆黨)의 변을 만들었고 우리는 죽음을 결단하고 의에 분발하여 원수를 갚고 의관(衣冠)을 보존하는 거사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자부하는 바라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것은 안승우(安承禹)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말이다. 안승우는 지평(砥平)에서 안종응(安鍾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출생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명민함이 사뭇 뛰어났다. 초년에는 여기 저기서 학문을 닦아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유중교(柳重敎)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학문은 물론이고 인격 형성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유중교가 사망한 후에는 김평묵(金平默)과 유인석(柳麟錫)을 죽을 때 까지 모셨으니 이항로에게서 비롯하여 최익현·김평묵·유인석으로 계승 발전된 위정 척사 사상(衛正斥邪思想)을 계승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안승우가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한 것은 갑오 경장이 있은 직후였다. 이 때 그는 문하생과 함께 제천의 어떤 절에서 피서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의 변란 소식이 전해지자 산에서 내려와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듬해인 1895년(고종 32)에 을미 사변이 일어나 국모가 살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병을 일으킬 결심으로 스승인 유인석을 찾아갔다. 이 때 유인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수란 싸움터의 북 아래에서 죽고, 마부란 말고삐 아래 죽는 것이니 선왕의 도를 지키다가 죽는 것은 선비의 상사다」라고 말하고 세 가지 방책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바다로 떠나가는 것, 스스로 깨끗이 죽는 것,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안승우는 의병을 일으키는 방책을 취하여 이필희(李弼熙) 등과 함께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때 고향 친구인 이춘명이 의병을 일으키려 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협동하여 원주 땅 안창(安昌)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이 때가 11월 28일(혹은 29일)이다. 이들의 의병 부대는 원주를 거쳐 제천을 공략하고 이 곳에서 이춘영과 함께 이필희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는 군무 도유사(軍務都有司)가 되었다. 그 후 제천으로 환군하

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영월로 퇴군하였는데, 때마침 스승인 유인석이 당도하였으므로 이춘영과 함께 간청하여 유인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제천을 거쳐 충주에 당도하여 일본군을 무찌르고 성을 점령하였다.

이보다 앞서 충주 관찰사인 김규식(金奎植)이 가흥(可興)에 있는 일본군에게 구원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의병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한 다음에야 구원하러 나타나 남산에서 내려다 보며 공격하여 왔다. 의병 부대는 성을 의지하고 격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고 남산을 지켰다. 이 때 일본군은 단월(丹月)에 기지를 두고 수시로 성을 공격하여 왔다. 그리하여 사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적을 무찌르기 28차나 하였다.

그러나, 의병 부대의 피해 역시 컸으므로 부득이 충주성을 포기하고 황강(黃江)·청풍(淸風)을 거쳐 제천으로 들어가 이 곳을 근거지로 삼고 다시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안승우의 종사관이던 민의식(閔義植)·심리섭(沈理燮) 등이 안승우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서울 병정이 아니면 왜놈을 쳐부술 수가 없으니 만약 다소의 금전이 있으면 서울 병정을 모집하여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승우가 그들에게 2천금을 주어 보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서울로 올라가 안승우를 배반하고 조정 대신들에게 제천의 의병 상황을 보고하고 토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관군 장기렴(張基濂)이 제천으로 내려와 의병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 때 주위 사람들이 「관군과 더불어 싸우기 어려우니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승우는 「지금 3 이씨(이범진·이완용·이윤용)가 비록 김홍집을 죽였으나 그 내용은 이익으로써 권세를 빼앗은 것이요, 충성으로써 반역자를 토벌한 것은 아니니 왜놈의 심부름꾼이 된 것은 전후가 다름이 없으며, 또 적들이 임금을 가둔 뒤로는 누가 임금의 명령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가? 이 무리는 모두 왜놈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국모를 살해한 자들이니 나의 적에 대한 토벌은 반드시 왜놈을 먼저 토벌하자는 것이어늘 지금 스스로 와서 죽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맞아들인단 말인가」라고 말하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안승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성에 올라 싸움을 독려하며 아침 부터 정오까지 싸웠는데, 적은 세가 불리함을 알고 바야흐로 후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때 거센 바람과 함께 소낙비가 쏟아져 화승총(火繩銃)을 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본 적이 다시 공격하여 왔으므로 군사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안승우는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몸을 적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중 사격을 받고 단정하게 앉아 있으려니 관군의 지휘자가 나타나 투항

하기를 전하였다. 그러자 안승우가 꾸짖기를 「너희들은 견양(犬羊)을 섬기어 국모를 살해하고 군부를 욕되게 하였으며, 또 왜적을 토벌하는 의병을 공격하니 너희들은 금수 중의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다시 투항을 권하므로 크게 꾸지람을 하고 손에 든 깃발을 움켜쥔 채 죽어 갔다.

37. 게릴라 전의 명 의병장 김수민

1907년의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전개된 항일 구국 투쟁은 종전까지의 의병 항쟁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군대 해산 이전의 의병 항쟁이 주로 전직 고관이나 또는 양반 유생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나 이후의 의병 항쟁은 주로 해산된 군인이나 혹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주도된 항쟁은 그 이전의 항쟁보다 전술적으로나 규모에 있어서 훨씬 성공적이었고 질서적이었으며, 또 한 격렬성을 띠고 있었다.

1907년대의 경기 지역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13도 도총독(都總督)이 되어 각지에서 용맹을 떨친 사람이 장단(長湍) 출신의 김수민(金秀民 혹은 秀敏)이다. 그런데, 1907년 이전의 의병장으로서 평민 출신이 없던 것은 아니고 1895년(고종 32)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장 가운데 지평(砥平)의 김백선(金百先 혹은 伯善)은 평민 출신이면서 용맹을 떨친 의병장이었다. 그는 이춘영과 안승우가 원주 안창(安昌)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지평의 화포군(火砲軍)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합류하였다. 이 때 이춘영과 안승우의 의병 부대 장병들은 그를 보고 기뻐 날뛰면서 이제 김백선 장군이 이르렀으니 앞으로의 일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그는 충주성 공략 때 선봉장으로서 큰 공을 세웠으나 군률을 어겼다 하여 대장 유인석에 의하여 처형되고 말았다.

김수민의 출생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는 일찌기 동학당에 가담하여 활약하다가 1907년에 군대 해산이 있자 의병을 일으켰다. 김수민은 부하가 약 300명에 이르자 개성 대흥산(大興山)창고에 보관중이던 정부의 대포 39문과 소포 15문을 빼앗아 가지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는 용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사격술에도 능한 백발백중의 명사수였고 또 한 전술에도 능해 그의 부대는 각지에 출몰하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다. 1907년 11월 17일에는 개성에서 일본 수비대와 격전을 벌린바 있고, 1908년에 들어와서는 다른 의병 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였다. 그는 의병을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유격대를 편성한 후, 이해 4월 16일에는 구화장(九化場) 분견소를 기습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무기와 탄약을 빼앗았다.

이 곳에서 빼앗은 무기와 탄약으로 부대의 무장을 재 정비한 후 장단·풍덕(豊德) 일대에서 크게 군세를 떨쳤다. 일본군이 이들은 진압시키기 위해 개성·장단·풍덕

등지의 각 수비대와 헌병을 동원하여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일본군의 작전보고서에 「각 수비대와 헌병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때로는 소집단을 괴란시켜 약간의 손해를 입혔으나 아직 의병 세력을 종식시키지 못하였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후 김수민 부대는 점차 남하하여 10월 상순에는 강화도를 기습 공략하였다. 강화도를 공략한 김수민 부대는 전등사(傳燈寺)에 거점을 두고 약 100명의 병력으로 게릴라 전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본군은 용산의 보병 부대 병력을 파견하여 소탕하려 하였는데, 의병들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는 일본군에게 일제 사격을 가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강화부로 퇴각한 일본국이 증원군을 요청한 후 재차 공격하여 왔으나 그 때는 이미 의병들이 철수한 뒤였다.

이와 같이 의병 토벌에 실패한 일본군은 각지의 병력을 모아 대대적인 의병 소탕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11월 20일 부터 3일간에 걸쳐 개성 수비대에서 장교 이하 30명, 용산 보병부대에서 장교 이하 70명, 해주 수비대에서 장교 이하 34명, 연안 수비대에서 장교 7명을 동원하여 전원을 8종대(縱隊)로 나누고 강화도 동부로 부터 서쪽의 교동도·매음도(媒音島)에 이르기 까지 전도에 걸쳐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이러한 작전 전개에 대하여 김수민은 과감하게 맞서 강화부 남방 20리 지점의 정두동(亭頭洞)과 산문동(山門洞) 등지에서 그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이리하여 일본군의 대병력을 투입한 소탕 작전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의병들은 배를 타고 황해도와 그 주변 섬으로 이동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황현의 「매천 야록」 융희 2년 10월조에 「경기 의병이 강화에 모이니 무릇 7,000명이었으며 일본군과 일진회 회원 피살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강화섬이 크게 어지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으로도 김수민 의병부대의 게릴라 전술이 얼마나 격렬하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만 하다.

김수민은 이러한 성공적인 게릴라 전술의 운용 뿐 아니라 화약과 무기까지 제조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한다. 김수민은 장단 덕음동(德陰洞)에다가 군량을 모아 쌓아 두었으며, 의병들의 복장을 솔잎 색깔로 염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병참면에서도 그의 역량은 발휘하였다고 한다. 또 그는 부호들의 양곡과 의복을 징발하며 군수용으로 충당하고 어려운 농민들은 철저히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민폐를 일체 엄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평민 출신이면서 장단군 내외에서 덕망이 으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였으므로 그의 휘하에는 많은 농민들이 모여 들어 그 수가 한 때는 2,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봇짐 장사꾼들을 모집하여 정보대를 편성하고 적의 정보를 밀탐토록 포열하였다. 김수민 자신도 적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 더 효율적인 항일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서울에 잠입하였다가 체포되어 1908년 12월 17일에 순국하였다.

38. 3·1 운동의 민족 대표 이종일

이종일(李鍾一)은 1858년(철종 9)에 포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15세에는 이미 4서 3경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문과에 급제하여 1882년(고종 19)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와 정 3품의 위계에 올랐다.

1898년(광무 2)에 순 국문판으로 된 「제국 신문」을 창간하여 그 사장의 되었다. 이듬 해 고종 황제의 탄신일 기사에 글자를 잘못 식자하였다 하여 불경죄로 투옥되었으나 그를 중상하는 자의 교의적인 모략으로 밝혀져 석방되었다. 1909년에 이종일은 천도교(天道敎)에 입교하여 천도교 월보 과장(月報課長)과 보성인쇄 주식 회사 사장이 되었다.

한일 합방 후 일본은 강력한 탄압 정책을 써서 국내의 모든 사회 단체를 해산하고 다만 종교 단체와 교육 기관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지할 곳을 잃은 국민들이 종교에 의지하여 위안을 얻거나 국권 회복의 길을 교육에서 찾아 교육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의 주동체가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단체와 교육 기관이었다.

이 때까지 교육 활동이나 종교 운동에 의지하던 민족 운동을 전국적인 대규모 독립 운동으로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민족 자결 주의이다. 민족자결 주의는 제 1 차 세계 대전의 뒷 처리를 위하여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원칙의 하나이다. 이 민족 자결의 원칙은 세계 약소 민족에게 큰 고무제가 되었고 더우기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한국 민족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서재필·안창호·이승만 등이 중심이 되어 재미조선인 전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 편, 이듬해 1월 부터 열리는 파리강화 회의에 우리민족 대표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경의 우리 유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이들은 2월 8일을 기해 「조선 독립 청년단」의 명의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확정하고 군내의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대표를 서울로 잠입시켰다. 한 편, 상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낼 민족 대표를 선정하여 출발하게 하고 국내와도 연락을 취하였다.

이 때를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일대 민중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손병

희(孫秉熙) 등 천도교 측과 송진우(宋鎭禹) 등 중앙 학교 측, 그리고 박희도(朴熙道) 등 기독교 측이 그것이다. 또 한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보성 전문 학교의 강기덕(康基德)과 연희 전문 학교의 김원벽(金元璧) 등 청년 학생층이 있었다. 이러한 각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일원화의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은 보성 전문 학교 교장이던 최린(崔麟)과 중앙 학교장 송진우, 중앙 학교 교원인 현상윤(玄相允) 등이 평소의 친분 관계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일대 민중 운동을 전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우선 「독립 선언서」에 서명할 민족 대표를 선정하기로 하고 기독교 측에서는 장로교의 이승훈(李昇薰) 등 7명과 감리교의 박희도 등 8명에 기독 신보사의 박동완(朴東完)을 합친 16명을 선정하였으며, 불교 측에서 한용운(韓龍雲) 등 2명과 천도교 측의 손병희 등 15명을 선정함으로써 민족 대표 33인이 확정되었다.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포천 출신의 이종일 외에 광주군 출신의 이종훈(李鍾勳, 천도교), 양평군 출신의 박동완(기독), 여주군 출신의 홍병기(洪秉箕, 천도교) 등 4인의 경기도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

「독립 선언서는」는 최남선이 기초하여 손병희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천도교 경영하에 이종일이 사장으로 있는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하기로 하였다. 이종일은 2월 27일에 오세창(吳世昌)으로 부터 원고를 받아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휴가를 준 후, 공장 감독 김홍규(金弘圭)와 족보를 인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8일 새벽 3시까지 「독립 선언서」 2만 1천장을 인쇄하였다. 그리고 이종일이 인쇄물을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도중 안국동 네 거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였으나 태연하게 성주(星州) 이씨 족보라고 속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 집으로 옮겨 밀실 깊숙히 감추어 두었다.

이 날 아침에 인쇄된 「독립 선언서」 3매를 오세창에게 보내어 인쇄가 끝났음을 알리자 오세창은 청색 종이 조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넘겨 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안상덕이 1,500매를 가지고 강원도·함경도로 떠나고, 김상열이 3,000매를 가지고 평안도로, 이경섭이 5,000매를 가지고 황해도로, 인종익이 2,000매를 가지고 충청도·전라도·경상도로 떠났으며 기독교인 김창준에게 3,000장, 한용운에게 2,000장, 이갑성과 학생 1명에게 2,000장을 넘겨 주었다. 그 밖에 암호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청구하는대로 넘겨 주고 100장 가량 남겨 두었다가 3월 1일에 가지고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종일은 민족 대표들과 함께 태화관(泰和館)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3창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이종일은 3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옥한 후 「한국 독립 비사(韓國獨立秘史)」를 집필하고 「조선 국문 연구회」회장이 되어 한글 맞춤법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1925년 8월 31일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오세창·권동진 두 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1962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複章)이 수여되었다.

39. 임정 요인 신익희

신익희(申翼熙)는 1894년(고종 31)에 광주군에서 장악원경(掌樂院卿)을 지낸 신단(申檀)의 다섯 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어릴 때 부터 총명하여 부모와 형제들로 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9세 때에 이미 4서 3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12세 때 보통 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별로 배울 것이 없었으므로 곧 그만 두고 15세 때 서울로 올라와 관립 한성 외국어 학교 영어과에 입학하였다.

그가 17세 되던 1910년에 합방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에 그는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뒤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면 먼저 실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여 191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학과에 입학하였다. 신익희는 학문과 독서에 열중하는 한 편, 유학생들을 결속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당시 동경에는 뒷 날 독립 운동에 명성을 떨친 안재홍·김성수·장덕수·현상윤·송진우·김병로·조만식 등 많은 학생들의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신익희는 이 유학생들의 친목회를 하나로 묶어 학우회(學友會)를 결성하고 동지들의 추천으로 학우회의 총무·회장 등을 맡아보았다. 그리고 기관지 「학지광(學志光)」을 발간하여 민족의식과 독립 정신을 고취하였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것은 23세 때인 1916년이다. 귀국하여 잠시 중동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이듬해에 김성수의 간곡한 권유로 보성 전문 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가 보성 전문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무렵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 주의를 제창하자 이에 고무된 민족 운동가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거족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 의사로서 독립을 원한다는 독립 선언을 전세계에 알리자는 주장이 무르익어 독립 선언서 기초에 착수하는 한 편, 신익희가 해외로 나가 동지들에게 연락하는 임무를 띠고 압록강을 건넜다.

그가 동북 만주와 북경, 남경 등지의 독립 지사들을 찾아보고 상해에 도착한 것이 1919년 1월이었다. 그가 상해에 머물고 있을 때,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2·8 독립 선언이 있었다. 귀국길에 올라 평양역을 지나다가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 행렬을 목격하고 그는 감격으로 끓어 오르는 눈물을 흘렸다.

서울에 잠입한 신익희는 밤새도록 독립 선언서를 등사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보성 전문의 강기덕(康基德)에게 연락하여 서울 시내의 학생들이 총동원되는 제 2 차 시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5일에 노도와 같은 학생들의 대열이 일본 경찰·헌병들과 충돌하여 강기덕을 비롯한 많은 학생 대표들이 체포되고 일본 경찰들이 배후 조종자인 그의 숙소를 포위하였다. 그는 뒷 담을 넘어 겨우 피신하였으나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변장으로 국경을 넘어 3월 19일에 상해에 도착하였다.

당시 상해에는 이미 애국 지사들이 「신한 청년단」을 조직하고 활동 중이었는데, 신익희가 상해에 도착한 때를 전후하여 국내를 비롯한 연해주·구미·일본 등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지사들이 모여들어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 때 신익희는 내무 총장 서리 및 차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그는 국무원 비서장·외무 총장·학무 총장·의정원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때 임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독립지사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정부 요인마저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므로 동지들이 대부분 연고지를 찾거나 생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해로 떠났다.

그런데, 1923년 봄에 어머니 정경랑(鄭敬娘) 여사가 본국에서 일본 경찰의 등살에 시달리다가 감시의 눈을 피해 손자를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김구 주석의 어머니·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 함께 해외 독립 운동가들 사이에 3여걸(三女傑)로 불리었는데, 온갖 고난 속에서도 아들의 독립 운동 뒷바라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다가 1931년에 세상을 떠나니 신익희는 자책과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분말로 화한 어머니의 뼈를 장강의 흐르는 물에 띄웠다.

한 동안 침체했던 독립 운동이 1932년의 이봉창(李奉昌) 의사 의거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고, 1933년의 윤봉길(尹奉吉) 의사 의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익희는 무장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청년들 규합에 주력하였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1940년에 임시 정부가 중경(重慶)으로 옮기고 이해 9월 17일에 숙원이던 광복군(光復軍)을 결성하게 되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 정부는 정식으로 일본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고 광복군은 연합국에 가담하여 대일전에 참가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자 내무 부장이던 신익희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 알선을 요청하고, 중국 당국을 찾아 동포들의 귀국 편의 제공을 교섭한 후 12월 1일에 그는 임시 정부 요인 14명과 함께 제 2 진으로 상해를 떠나 옥구(沃溝) 비행장에 내렸다. 그는 비행장에 내리면서 활주로의 흙 한줌을 덥석 쥐어 입을 마추면서 동지들과 함께 감격으로 대성 통곡하였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신익희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되고 1950년에 다시 의장으로 재당선되었다. 1956년에 자유당에 맞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유세차 호남으로 떠났다가 이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때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40. 봉선화의 작곡가 홍난파

홍난파(洪蘭坡) 1897년(건양 2) 화성군 남양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영후(永厚)이다. 그는 보통 학교를 마치고 곧 서울로 올라와 중앙 기독청년회 중학부에 입학하였다. 이 곳에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여 음악계의 원로인 김인식(金仁湜)의 지도를 받았다. 당시 김인식은 조선 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 서양 음악부의 주임 교사 임무를 맡고 있었다.

홍난파는 1913년 9월에 바이얼린 공부를 시작하여 12월 23일 밤에 그의 형이 다니던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 주최의 크리스마스 축하식에서 첫 무대를 밟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이곳 저곳의 교회에 나가 1년에 30여곡을 연주하게 되었다. 1914년에는 김인식을 위시하여 그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유료 음악회를 열고 이어서 김인식 지도아래 서울의 여러 교회 음악 청년들과 정악 전습소 교사·학생들이 협동하여 경성 찬양회(京城讚揚會)라는 대 합창대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 종교 음악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 해에 홍난파는 정악 전습소를 사임한 김인식의 뒤를 이어 이 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홍난파는 22세 되던 1918년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동경 음악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의 음악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지자 학교를 그만 두고 귀국하였다. 그 후 1920년 봄에 학업을 계속하려고 학교에 찾아갔더니 소요를 일으킨 조선인은 복교시킬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모멸감과 분노를 안은 채 되돌아오고 말았다.

실의에 빠진 그를 이해하고 위로해 준 것은 선배인 김형준(金亨俊)이었다. 그는 새로 지은 시 한 수를 홍난파에게 보여주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홍난파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벌떡 일어나며 바이얼린을 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곡으로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나라 잃은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즐겨 불리던 「봉선화」이다. 홍난파는 실의에 빠진 자기의 슬픔과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을 이 꽃 그늘에 묻으려고 하였다.

이 무렵 그는 음악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경성 악우회(京城樂友會)를 조직하고 그 주간이 되었으며, 이 악우회를 통하여 음악의 보급 운동을 펴는 한 편, 연악회(硏樂會)를 창설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리고 그는 「처녀혼(處女魂)」이라는 단편집을 내

었는데, 이 단편집 첫 머리에 「애상(哀想)」이라는 곡명으로 악보를 실었다. 이것이 「봉선화」의 원형이다. 그는 바이얼리니스트이고 작곡가였으나 문필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1923년에는 장편 소설 「폭풍이 지난 뒤」를 탈고하기도 하였다.

1927년에 홍난파는 다시 동경으로 건너가 동경 고등 음악 학원에 편입하여 음악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 곳에서 세계적 바이얼리니스트인 모기레프스키에게 2년간 지도를 받으면서 그의 타고난 천분으로 장족의 발전을 보여 동경 교향 관현 악단의 제 1 바이얼린 연주자로 선임되었다.

192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는 중앙 보육 학교 음악 교수가 되었다. 이 때 홍난파는 양정 중학 학생이면서 동요 작가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윤석중(尹石重)에게 동요 작사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창작 동요 50곡을 수록한 「조선 동요 100곡 집」 상권을 발표하였다. 이 동요집에는 「고향의 봄」·「달마중」·「반달」 등 어린이들에게 나라 없는 설음을 노래해 준 것도 있지만 우리들 마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어린이 가슴 속에 애향심을 길러주는 노래가 많았다.

1931년에 홍난파는 미국으로 건너가 셔우드 음악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다시 계속하는 한 편, 연구의 틈을 타서 「동요 100곡 집」 하권의 작곡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몇 편의 합창곡과 시조의 작곡도 시도하였는데, 이은상의 시조를 골라 작곡을 완성하고 혼자 바이얼린으로 그 곡들을 켜고 있었다. 「성불사 깊은 밤에……」·「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봄 처녀 제 오시네……」.

1932년 2월에 귀국하여 이화여자 전문 학교의 강사로 나가면서 1933년 4월에 제 2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말 방송 프로를 가지게 되자 홍난파는 음악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37년에 흥사단(興士團)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나온 뒤에는 오로지 제 2 방송의 관현 악단 육성에만 전념하였다. 1938년 7월에 그는 이제껏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던 글 중에서 추려서 모은 수필집 「음악 만필(音樂漫筆)」을 출판하였다. 1941년 2월 5일에는 홍난파가 평생을 두고 바라던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최초의 연주회를 가졌다.

이 후 홍난파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원래 약질이었지만 흥사단에 관련하여 수감 생활을 치른 것이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1941년 8월 30일에 임종이 다가옴을 느끼자 그는 연미복(燕尾服)을 내오라고 했다. 부인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애써 단정하게 연미복을 입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영원한 연주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는 할 일 많은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빼앗긴 땅에서 천대 받으며 살아가는 동포의 서러움을 노래한 「애수의 조선=봉선화」·맑은 마음씨가 담긴 수많은 동요·오랜 생활의 정서가 베인 가곡 등 보배로

운 음악을 남긴 한국 근대 음악의 선구자이다. 수원시 팔달 공원에는 그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고 수원에서 해마다 9월에 「난파 음악제」가 열리고 있다.